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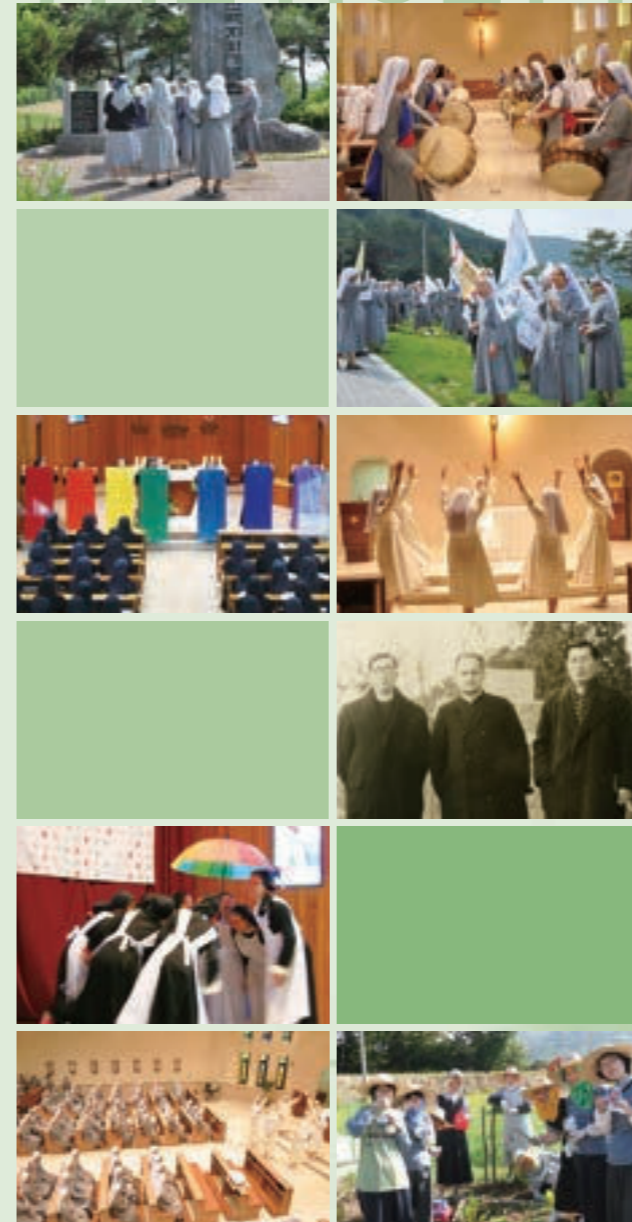


성가소비녀회 마크는 예수 · 마리아 · 요셉을 상징한다.
첫째 기둥 J는 예수(JESUS), 가운데 M은 성모 마리아(MARIA)
둘째 기둥 J는 요셉(JESEPH)을 형상화한 것이며, 원은 수도 공동체를 뜻한다.
하느님의 종들로서 구원사업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체적 생활을 하신
예수 · 마리아 · 요셉을 본받는 소비녀(小婢女, 작은 여종)들의 삶을 의미한다.

소비녀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

소비녀





“그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마십시오”

교황선거에서 삼분의 2의 득표로 당선박수갈채를 받았을 때, 나의 위대한 친구 클라우디오 후메스 추기경은 나를 얼싸안고 내게 말해주었다. “그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마시오”라고.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 ‘가난한 이들, 가난한 이들’로 새겨졌다. 그리고 나는 가난한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씨의 프란치스코를 생각하였다.

프란치스코는 평화의 사람이다. 내 마음에 와 닿은 그 이름, 아씨의 프란치스코. 그는 나에게 가난함의 사람, 평화의 사람,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사람. 이 순간, 우리 또한 그만큼 좋은 창조물과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가? 아, 나는 가난한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교황 프란치스코



“Non dimenticarti dei poveri!”

“Io vi racconter la storia... Quando negli scrutini I voti sono saliti a due terzi, viene l'applauso consueto, perch stato eletto il Papa. Il cardinale claudio Hummes(un grande amico, un grande amico!) mi abbracci, mi baci e mi disse: "Non dimenticarti dei poveri". Quella parola mi entrata qui: I poveri, I poveri. Poi, subito, in relaxione ai poveri ho pensato a Francesco d'Assisi. Francesco l'uomo della pace. E cos, venuto il nome, nel milo cuore: Francesco d'Assisi. per me l'uomo della povert, l'uomo della pace, l'uomo che ama e custodisce il creato. In questo momento anche noi abbiamo con il creato una relazione non tanto buona, no?... Ah, come vorrei una Chiesa povera e per I poveri!”

Papa Francesco

짜임

- 04 설립자 말씀, 회헌
- 06 사진으로 읽는 제15차 수도회 총회
“주님의 영이 우리를 다그치신다, 세상의 절박한 곳으로”
- 12 소비녀들에게 - 주님께 대한 사랑은 벗에 대한 사랑이다_ 한상봉 님

특집 - 하느님 창조 질서 회복

- 19 농부 소비녀의 소품_ 김 니코데모 수녀
- 26 포도밭 이야기 - 아버지는 농부입니다_ 김 야고보 수녀
- 30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에너지 대안_ 이유진 님
- 40 강정 마을에서_ 박 에제키엘 수녀
- 44 이시돌 호스피스_ 이 그레이스 수녀
- 46 환경을 살리는 삶_ 한 하상바로 수녀
- 50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네_ 조 예수의 소피아 수녀
- 56 단상) 수술되어지는 '강생'을 꿈꾸고, 모세의 '거룩'을 만나다_ 김 화밀리아 수녀

소곳이 오랑캐꽃 피는 나자렛

- 59 내 작은 십자가의 길_ 백 진희안드레아 수녀
- 62 자캐오의 꿈-그림_ 이 잔마리 수녀
- 64 텃밭을 가꾸시는 하느님_ 황 베드로 수녀
- 70 마리아는 길을 떠나_ 권 마리플로린 수녀
- 72 도담도담 사랑하기_ 홍 그라시아 수녀
- 75 요셉, 새로운 시대의 예언적 남성상_ 백 소피아 수녀

성가의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들

- 79 나의 영적 여정_ JMJ 회원 김봉희 마리아 님
- 80 나를 행복하게 하는 JMJ_ JMJ 회원 정우진 코르비니아노 님
- 82 나의 탈출기 그리고 새로운 소명_ 새터민 김 광열요한 님
- 86 거둠



통 권 제31호
발 행 처 성가소비녀회
전 화 02_940_5800
주 소 136_100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번지
홈페이지 www.holyfamily.or.kr

설립자 말씀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백배의 열매를 맺는 씨가 되어야 합니다.
(설립자 강론집 다해 1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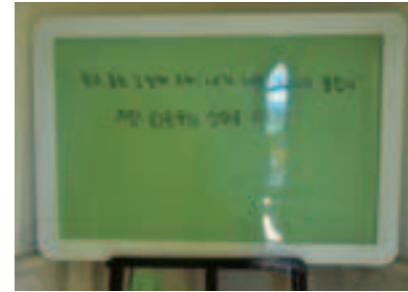
회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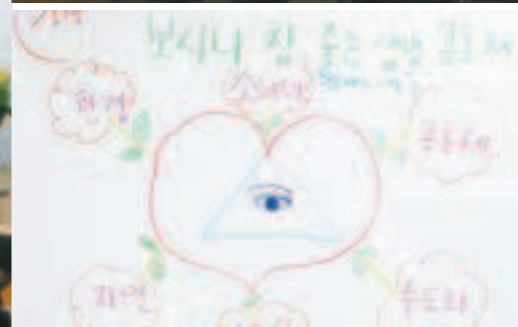
우리는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요청을 우주적 차원으로 바라보고 식별하며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선택과 응답을 한다.
(성가의빛 45)



“주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세상의 절박한 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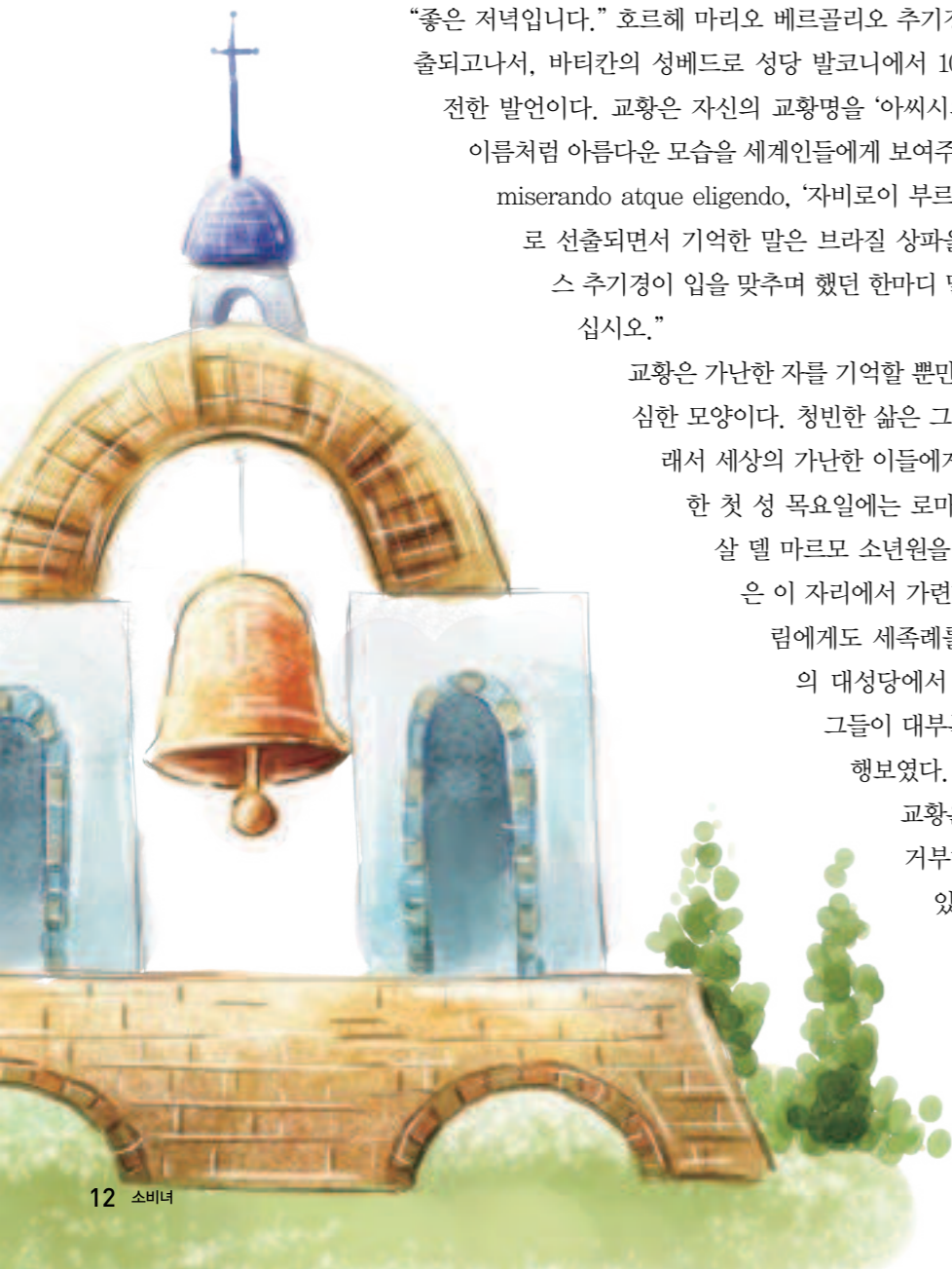




주님에 대한 사랑은 벗에 대한 사랑이다

- 개인영성과 사회적 영성에 관하여

한상봉 이시도로 님(가톨릭뉴스 지금여기 편집국장)



“좋은 저녁입니다.”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이번에 266대 교황으로 선출되고나서,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 발코니에서 10만 명의 신자들에게 처음으로 전한 발언이다. 교황은 자신의 교황명을 ‘아씨시의 프란치스코’로 정했으며,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교황은 자신의 문장에 miserando atque eligendo, ‘자비로이 부르시니’라고 적었다. 그가 교황으로 선출되면서 기억한 말은 브라질 상파울루 명예주교 클라우디오 우메스 추기경이 입을 맞추며 했던 한마디 말이다.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교황은 가난한 자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로 살기로 작심한 모양이다. 청빈한 삶은 그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세상의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 즉위 이후 맞이한 첫 성 목요일에는 로마 근교의 청소년 교정시설인 카살 델 마르모 소년원을 찾아가 세족례를 행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가련한 소년뿐 아니라, 소녀와 무슬림에게도 세족례를 행했다. 과거 교황들은 도심의 대성당에서 남성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며, 그들이 대부분 사제였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행보였다.

교황은 아예 교황관저에서 지내기를 거부하고, 콘클라베 기간부터 묵고 있던 바티칸의 ‘카사 산타 마르타’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기로 결정했다. 교황이 다른 사제들과 지내면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황의 모습은 기존 가톨릭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에게 큰 충격이 될 게 뻔하다. 교황조차 이처럼 청빈을 선택하였건만, 지역교회 주교나 고위성직자들이 호사를 누리기는 꺾끄럽기 때문이다. 주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주님으로 고백해 왔던 예수님처럼 적빈(赤貧)으로 살기는 어렵다고 호소하겠지만, 검소하고 단순한 삶은 가능하지만 그동안 짐짓 회피해 왔던 성덕이기 때문이다.

지난 2천년 동안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전환 이후로 신앙은 가톨릭교회의 고위성직자들 안에서 ‘수식어’에 지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우리말로 ‘Pope’ 적절하게도 ‘교황’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 직은 어떤 이유에서도 황제권력과 비등한 것이 될 수 없다. **교회직무가 권력이 될 때, 그들의 눈 앞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가난한 이들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교회직무는 봉사이며, 당연히 이 봉사의 대상으로 ‘가난한 이들’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사실상 가난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복음선포의 본질적 측면이다.

우리의 친구이며 연인인 하느님

그래서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는 지난 총회를 거치면서 다시금 ‘신비와 예언’의 통합을 결의했던 것이다. 실상 신앙과 실천은 둘이 아니며, 참된 신앙은 참된 실천을 낳기 마련이다. 믿지 않고서야 행할 수 없으며, 행하지 않고서야 믿음일 수 없다. 그러나 이 믿음이 사적 개인 안에서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교회 안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이 신앙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굳이 ‘혁명가’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 시대 조류에 맞춰 ‘현자’라고 부를 필요도 없다. 사실상 그분은 민중적 지혜를 통해 혁명으로 나아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것이다. 그저 단순히 현자로만 남았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또한 그분을 혁명가라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분에게서 ‘어떤 권력을 향한 의지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혁명이란 민중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전복적 싸움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사제가 아니라 평신도였다



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유대종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제는 본인의 의식과 상관없이 신분상 '권력'에 가름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매만졌으며, 그를 만난 사람은 그 눈길만으로도 치유되었음을 '믿는다'. 양은 제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법이라고 한 그분의 말씀이 옳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들은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 기억이 훗날 그리스도교 신앙을 낳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유자에 머물지 않고 상처의 본질로 전진했으며, 그 본질의 중심에 '하느님 없는 권력의 무자비함'이 놓여 있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고행의 길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으며, 거기서 무력함으로 무력한 자들을 섬기는 최고의 형식,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영성은 '주님에 대한 사랑'일뿐 아니라 '벗에 대한 사랑'이다. 그분은 가난한 백성들의 약점을 잡고 '주님'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 그분은 그저 섬약하고 슬픈 눈동자를 가진 이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었다고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들의 친구'로 죽었다. 여기서 우정이 발생한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친구일 뿐 아니라 연인이기를 자청하신다면, 그래서 연인의 눈높이에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다면, 가장 남루한 모습으로 것처럼 남루한 인간에게 말을 건네고 아파하시고 상처를 매만져 주셨다면, 마침내 연인을 위해 목숨을 내주셨다면 그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전달하시는 매체가 예수님이셨음을 발견한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하느님을 볼 도리가 없다.

교회는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미운 사람들과는 말을 섞지 않는다. 반면에 연인들은 서로 말을 섞고 살을 섞고 싶어 안달한다. 하느님 역시 인간에게 말을 섞고 살을 섞고 싶어 하셨다. 당신이 인간에게 섞은 말씀들은 성경으로 남아 있고, 당신이 인간에게 섞은 살은 성체성사 안에서 기념된다. "이는 내 몸이다. 받아먹어라." 마음이 간절하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러니, 중요한 건 마음이다. 신앙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선포한 '신앙의 해' 한가운데서 선출된 것은 하느님의 섭리로 여겨진다. 때마침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개막 50주년을 지낸 직후였으며, 요한 23세 교황이 <지상의 평화>라는 사회회칙을 반포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에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이 장엄하게 선포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인 <교회헌장>과 <사



목헌장>, 사회교리 문헌인 <지상의 평화>는 한결같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성사인 '교회'가 시선을 교회 바깥으로, 그중에서도 가난한 이들과 신음하는 생태계를 위해 투신할 것을 요청해 왔다. <가톨릭교회교리서> 역시 3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회교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아직도 낯설다. 하물며 수도자들이야 말할 나위가 없다. 견고한 교회의 울타리 안에 머물 때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안전하다고 여긴다. 더구나 여성 수도자들은 본당수녀들처럼 '교회의 안 살림'을 맡아서 하는 게 제격이라는 게 가톨릭교회의 전통적 견해다. 주교들 역시 수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딸자식'을 바라보듯이, 수녀원 안에서 안전하게 기도만 하라고 부탁한다. 그 자애심을 탓할 수 없겠지만, 수태고지 이후에 나자렛에서 유다 땅까지 당차게 혼자 몸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마리아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성수도자들을 예수님의 독립적인 제자로 보지 못하고, 늘 남성 사제의 그늘 안에 붙잡아 두었던 교회를 복음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성수도자는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처녀이며, 동시에 세상과 인간을 품어 안는 어머니다. 처녀는 순결하고 어머니는 강하다. 처녀는 나자로의 누이 마리아처럼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고, 어머니는 마르타처럼 세상을 위해 헌신한다.





여성수도자들이 교회 살림만 돌보아야 한다면, 바깥 살림도 겸해야 하는 남성 사제들은 복음의 빛으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러나 실상 가톨릭교회에서 사회적 사안에 대해 교회의 입장을 밝힌 사회교리에 대해 사제들조차 충분한 견해를 지니고 있지 않다. 신학교에서 사회교리를 숙지한 것도 아니고, 사제평생 교육원에서 보수교육을 받지도 못했다. 사회교리를 모르니,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고, 사제들이 사회복음화에 관심이 없으니, 수도자는 물론 신자들도 '복음화'라면 무조건 입교자들을 늘이고 본당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여긴다. 용산참사가 발생했을 때,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고 소란할 때, 노동현장에서 해고노동자들이 줄줄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도 교회는 안녕했다. 이 가련한 인생들을 위해 현장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일부 사제, 수도자들을 보면서 "미사를 정치도구로 이용한다"며 비난하기에 급급하다. 세상의 가난한 이들에게 문을 닫은 제 가슴을 치는 대신에, 세상을 위해 투신하는 이들의 발목을 잡아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데 무심한 '공범'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세상에 투신하는 '두려움 없는 사랑'

참된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역대교황들이 바티칸에 머물며 황제다운 위용을 과시했지만, 요한 23세와 바오로 6세, 요한바오로 1세,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세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봉사직'으로서 자신의 소임을 성찰했듯이, 교회가 아직도 봉건제적 유습을 버리지 못했어도 자각한 사람들이 먼저 프란치스코처럼 옷을 벗고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주위의 시선을 잠시 접어두고 복음적 확신 안에서 거닐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다.

한국 주교회의 의장이며 제주교구장인 강우일 주교는 최근 급박하게 '신앙의 재구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불안한 한반도의 정황,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양극화의 시대에 강우일 주교는 예수는 지금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시선을 돌렸을까? 묻고 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응당 스승 예수와 운명을 나누어 가져야하기 때문이다. 그의 영광뿐 아니라 십자가도 나눠 가져야 한다. "만일 예수가

나였다면.."하고 묻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주교들과 사제, 수도자들이 성무일도를 바치고, 미사전례를 행하고, 성체조배를 하고, 묵주기도에 열성을 드리지만, 정작 성경에 드러난 예수에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자신의 생각에 대해 개별적이고 고유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그분에게서 해답을 찾지 않는 신앙이라면, 아무리 수천만 단의 묵주기도를 봉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금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분과 견주어 생각하지 않는 한, 그 기도가 나와 하느님, 나와 예수와의 관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우일 주교는 <가톨릭교회는 왜 사회문제에 관여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구원이란 정신적, 영적인 구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 정신적, 영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도 없었다"고 전했다. 강 주교는 "교회가 이어받은 예수님의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사랑"이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이 세상과 무관하게 하늘 높은 곳에 좌정하고 계신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 깊은 관심과 연민을 갖고 다가오시며 개입해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전했다.

강우일 주교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세상과는 아무런 인연을 맺지 않고 초연하게 산야에 묻혀서 명상과 기도와 영신적인 수련에만 몰두하신 분이 아니"라면서,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30여 년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그 시대의 세상이 차별하고 억압하고 외면하였던 보잘것없는 이들의 고통과 슬픔을 온몸으로 느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분"이라고 소개한다. **예수는 탐욕과 불의와 죄악으로 얼룩지고 억압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침묵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권력자들에게 살해당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마음의 평화,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것만으로



는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에 포함된 불의와 고통, 슬픔과 연민, 다름과 평화를 다 함께 끌어안는 것"이라고 전했다.

헨리 나웬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우리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신비와 혁명의 통합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회심은 '혁명의 개인판'이며, "진정한 혁명가는 모두 그 마음 속에 신비가이기를 요청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를 '무력한 신앙'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수도자들에게는 '관상'과 '활동'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많이 언급되어 왔지만, 신비와 혁명의 통합이라는 문제는 관상과 활동의 '방향'을 내포하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시대의 징표와 관계가 깊다.

신비는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침범할 수 없는 중심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예언)은 그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신비가가 혁명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사만인에게서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 하느님이 특별히 고통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망설임 없이 투신하게 된다. 연인을 향한 '두려움 없는 사랑'이 그를 현장으로 내달게 만든다. 무력한 신앙은 그렇게 이슬처럼 말라버리고 생동하는 신앙으로 거듭난다.

특집

하느님 창조 질서 회복

우주에는 창조적 힘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고
어두운 과거를 밝은 미래로 변혁시켜 주는 힘입니다.
이 우주의 도덕적 속성은 지속될 것이며
정의를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달읍시다.
-마틴 루터 킹-



농부 소비녀의 소풍

김 니꼬데모 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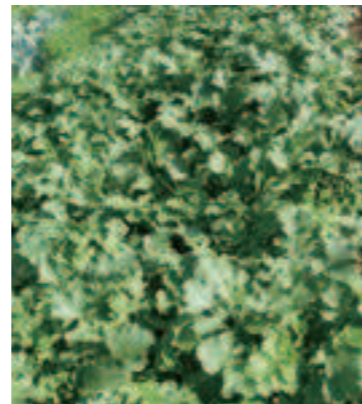
꿈이 이루어진 오늘 (2010,2,1)

오늘은 갑 형제님이 '성가일터'에 오신 첫 날이다.
 형제님은 일하고 싶다며 일하게 해 달라, 하셨었다.
 형제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게 되었다.
 형제님의 꿈이, 오늘 이루어졌다.

위 글은 제가 쓰는 생활글, 2010년2월1일의 생활글입니다. 농부공부를 하면서 학교수업에 생활글쓰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생활글 하나를 썼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개, 세 개로 이어지다가 이제는 매일 생활글을 씁니다.

저는 가난한 이들의 무료병원인 성가복지병원의 자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농장, 성가일터에서 농사일을 합니다. 농사일을 하면서 매일 생활글을 씁니다. 생활글은 하루 중에 있었던 일이나 생각을 쓰는 것입니다.

농사일은 밭에 씨앗을 뿌리고, 옮겨 심고, 풀을 뽑습니다. 작물은 커갑니다. 그러면 어느 날 멧돼지가 손가락 크기로 커가는 고구마를 다 뽑아 먹고, 고라



니가 채소를 뜯어 먹고, 토끼가 뜯어 먹고, 땅콩을 캐 먹고, 굴뚝이와 애벌레와 진땃물은 신나 잔치판을 벌입니다. 온갖 정성으로 지은 농사를 이들이 먼저 먹으니 힘이 빠지고 속이 상합니다만, 생각을 조금 넓게 하면 멧돼지, 고라니, 토끼, 굴뚝이, 애벌레, 진땃물은 저와 한 식구입니다. 밭이라는 식탁에서 함께 먹는 식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인 식구가 맞습니다. 밭식탁에선 먼저 보고 먼저 먹는 놈이 배부릅니다. 먹어 버리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남겨주면 고마울 뿐입니다.

우리 밭은 경사지고 큰 돌 작은 돌이 많습니다. 손수 팽이로 밭을 일구면서 일합니다. 농기구도 없습니다. 연장이 있을 뿐입니다. 함께 일하는 형제님들은 보통 두 분이시며 노숙자이며 알콜리즘이 대부분입니다. 일을 잘 하시다가도 술 한 번 드시면 오랫동안 결근하십니다. 농번기의 일이 바빠도 인정사정없이 한 번 결근하시면 매일 결근하시다 그만 나오십니다. 작년에 프란치스코 형제님은 일주일은 잘 나오시다, 이주일 결근하시고, 다시 나오시다 결근하시길 반복하시다 결근하시더니 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오로 형제님은 작년에 하루 일하시고 일당 받아 가시고 아무런 소식도 없으셨다. 올해 4월 나



오시고 또 소식이 없으십니다. 한 번 오셨던 형제님은 다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형제님들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술이 걸림돌입니다.

형제님들과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면서 일합니다. 형제님들은 일을 잘 하다, 결근하시면 매일 결근하십니다. 바쁜 농번기에도 결근이 심니다. 그럼 난감합니다.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합니다. 제가 밭의 작물이 자라도록 도움을 주듯, 하느님께서서는 제가 마음을 닦도록 형제님을 통하여 농사짓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농사일을 한다, 생각했습니다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농사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하느님께서 우주만물과 함께 해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농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며 우주만물의 식구들과 함께 하는 여정입니다.

봄이 오면 밭에 씨 뿌리고, 풀이 나면 풀을 뽑고, 꽃피면 꽃보고, 벌레가 생기면 작물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며 벌레잡고, 새가 올면 새소리 듣고, 수확할 때가 되면 수확하고, 수확하면 먹고, 많이 주시면 많이 나누어 먹고, 적게 주시면 적게 먹고, 비 오면 비에 맞추어 일하고 가물면 가물에 맞추어 일하는 것이 농사입니다. 그러기에 농사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노래하시는 대로 우주만물과 함께 추는 춤입니다.

텃밭에선 먹을 수 있을 때, 먼저 먹는 놈이 주인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언제 먹을 때인지를 알아야 먹을 수 있습니다. 즉, 하느님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먹을 수 있습니다. 도둑질도 아는 놈이 한다는 말처럼 아는 놈이 먹습니다.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것은 작물 하나하나, 하느님의 가족 하나하나를 정성껏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일을 많이 하고 수확을 많이 하려는 욕심은 만물을 지치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반면에 섬기면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고갑니다. 마음이 갑니다. 이해가 됩니다. 수확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섬기면 섬기는 대로 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듯 자랍니다. 병들면 마음이 더 가고 몸이 따라갑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면 즐거워 마음이 열리며 보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 사람들을 섬겼듯이 저는 우리집 텃밭에 있는 작물 하나하나를 섬기려 합니다.



농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퇴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면서 퇴비를 만들어 써야 한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첫해에 퇴비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풀과 밭의 부산과 음식물 찌꺼기와 소변을 받아 퇴비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이동식 화장실을 이용하여 야외의 생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이 날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동안은 제 똥과 오줌은 버리면서, 제 똥과 오줌은 만물을 오염시키



면서 풀과 다른 것의 부산물을 모아 퇴비를 만든다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 똥과 오줌이 만물의 오염이 아닌 거름이 되어, 하늘과 땅에 거름이 되며 순환된다는 것이 몹시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퇴비를 만들어 그 다음해부터는 퇴비를 사지 않고 직접 만든 것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실내에서 편안하게 똥과 오줌을 받을 수 있는 생태변기를 선물 받았습니다. 꼭 내 마음을 선물 받는 듯 한,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농사짓다 보니 첫 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몸과 마음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확한 농산물을 나누어도 거리상 시간상 나누지 못할 때가 있고, 별레가 먼저 맛본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버리게 될 때는 몸과 마음을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버림 받은 농산물에게 미안했습니다. 이 나누지 못해 버리는 농산물, 제 몸과 마음이 담긴 농산물을 버릴 수가 없어 농사 2년째는 효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효소공부를 하면 할수록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담긴 우리 텃밭에 있는 농산물로 담은 효소는 더욱 맛있는 듯하며 진짜 맛있습니다. 매일 효소를 먹으니 제 몸이 좋아지고 발의 형제자매에게도 주니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효소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농사일 3년째, 올해는 첫 해 둘째 해와는 달리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주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작년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을 하시는 신부님을 알게 되었고 신부님과 농사에 대한 것을 나누며, 고민하고, 신부님께서 도시 텃밭을 같이 공부하자, 제안하시어 텃밭교육양성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의정부교구에서 1차 도시농부학교를 열게 되었고, 실제로 실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



연과 어우러지고 사람과 어우러지도록 이끄신 듯 합니다. 올해는 어우러지는 농법입니다. 이 어우러지는 농법은 우리 수녀님과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농업에 관심 있는 수녀님들과 함께 수다 떨며, 생각하며, 나누며 함께 가고 싶습니다. 더불어 '소비녀의 도시 텃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뜻이 있는 수녀님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농장의 문을 열 꿈을 꾸습니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줄 몰랐습니다. 현실이 될 줄 몰랐습니다. 꿈을 꾸면서도 꿈이다, 생각했습니다. 꿈이 현실화 되어가는 풀무농업고등학교 생태농업과에서 농부공부를 하면서도 꿈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공부 2년째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마음과 가르침 그리고 벗들과 함께 하는 농사 실습과 인문 수업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끄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왜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학생들 마음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소중한 가

르침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의 인문 수업에 '생활글 쓰기'가 있습니다. 생활글은 생활에 있었던 일이나 생각을 글로 씁니다. 생활글을 쓰면서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농사에 대해, 우리에게 대해, 자신에 대해, 자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무의식속에 있던 것들이 나오며 되새김하면서 우리농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생활글을 쓰며 하루를 되돌아보며 미처 몰랐던 일들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이로써 생활글은 하루를 더 살게 해주었습니다. 이 생활글을 쓰면서 농부의 삶이 영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농부의 삶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이어지듯 농부의 생활글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매일 매일 '오늘' 입니다.

2010년 2월1일 생활글에서 갑 형제님이 일하는 꿈을 꾸듯이 저는 농부를 꿈꾸었고, 꿈이 이루어져 농부 소비녀, 오늘도 텃밭으로 소풍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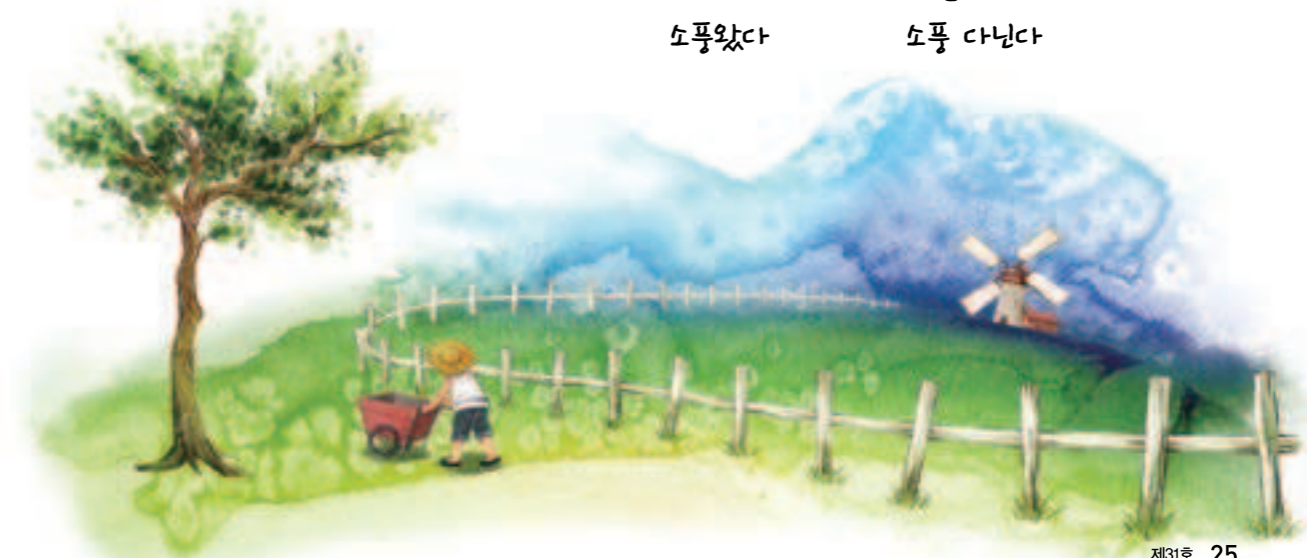
소풍 (2012. 2. 17)

예수님이
소풍 왔다

나는
소풍 간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에게
소풍왔다

나는
예수님과
텃밭으로
소풍 다닌다



포도밭 이야기

김 야고보 수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요한 15:1)

농부는 매일 흙을 만지고 하느님의 창조물인 작물들을 가꾸고 수확하면서 때로는 뜨거운 햇살로 때로는 촉촉히 적셔주는 빗방울과 미풍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함께 일한다.

포도밭에서의 본격적인 한해 농사는 포도나무 전정 작업부터 시작하여 나무 껍질을 벗기는 일로 이어진다. 2월 중순경, 겨울의 끝자락이지만 포도밭에서 오랜 시간 일하면 뺨속을 스며드는 추위를 느끼기 때문에 털잠바와 털신, 목도리로 무장을 하고 포도밭으로 향한다.

포도나무 껍질을 벗기는 것은 겨우내 나무껍질에서 월동하고 있던 병해충들을 제거해 주면서 포도나무에 활력을 좋게 하여 농약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두껍게 감싸고 있는 묵은 껍질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벗기면서 나의 고집스러움과 어두움들까지도 함께 벗어 놓는다. 이 작업은 나무에 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3월말까지 계속되는데 수액이 이동하는 시기가 되면 나무가 촉촉해져 더 이상 껍질을 벗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는 4월 말까지 밭작물을 준비하는 때이다. 모든 농사에는 때가 있기에 한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첫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밭을 잘 일궈 놓아도 씨 뿌릴 시기를 놓치면 일 년 농사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영농일지를 꼼꼼히 기록해 두고 참고서로 삼아야 한다.

밭작물은 감자심기부터 시작되는데 모든 농사가 그렇듯 정성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밭에 퇴비를 넣고 트랙터로 갈아엎으면서 두둑을 만든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씨감자의 싹이 두개 정도 나오게 절단하여 두둑에 깊이 심은 후 흙으로 덮고 비닐을 씌워 놓는다. 한 달 후 감자싹이 올라오면 가위로 구멍을 뚫어주어야 한다. 한조각의 감자가 땅에 묻히지만 이것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참으로 주님의 복음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알게 해준다. 모든 생명은 자신이 없어진 뒤에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삶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제 하우스 작업으로 이어진다. 하우스 한 동에는 상추, 열갈이배추, 근대, 아욱 등 푸성귀 채소들을 골고루 뿌려준다. 물을 먹은 어린 씨앗들이 두꺼운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새싹들의 생명력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또 다른 하우스에는 오이, 토마토, 아삭이 고추, 애호박 등 열매 채소들을 심는다. 이곳은 농사를 짓는 사도적인 만큼 찬거리와 간식거리를 직접 재배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큰 즐거움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을 심기위해 밭을 잘 분배해야 한다.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밥상이 더욱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지난해부터 우리 도창동 농장의 포도가 무농약 인증을 받아 시흥시 지역의 학교 급식으로 포도가 들어가고 다시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틈틈이 액비와 효소를 만드는 데 주로 4월과 5월에 일 년간 사용할 자연농자재들을 만든다.

액비는 소리쟁이와 쑥, 한약찌꺼기를 천매암과 부엽토 그리고 발효제를 물에 넣고 만들어 100일이 지난 뒤부터 포도밭과 채소밭에 사용하고 효소는 포도순, 아카시아꽃, 미나리, 포도알 속은 것을 설탕과 함께 재워 일년간 발효시킨 후에 다음 해 농사에 이용한다. 천연칼슘은 요리에 이용되고 남은 계란을 속껍질을 제

거하여 잘 말린 다음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 병에 넣고 여기에 현미식초를 부어 놓으면 신기하게도 계란껍질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계란껍질속의 칼슘이 그대로 쏘옥 빠져 나온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연칼슘을 물에 희석하여 작물이 칼슘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추어 뿌려준다.

그 외에도 EM과 바닷물 등을 함께 사용한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우리 주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천연 농자재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흙과 자연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지만 누구보다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실천해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소비녀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요즘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 지구 온난화 가속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뜻하지 않는 자연재해 발생과 함께 꽃매미 등 새로운 병해충들의 증가로 인하여 농사를 짓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 또한 FTA 협정에 따른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의 먹거리가 안전성에서 위협받고 있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 했는데 경제적인 이윤 가치만을 갖고 농사를 짓는다면 하느님을 닮은 참된 농부의 마음이라 할 수 없다. 농부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새 오월 초순이 되고 양증맞은 초록빛 포도순이 한 뼘 쯤 커져 있다. 하루가 다

르게 커가는 포도가지를 바라보며 기특해 할 사이도 없이 포도순 정리와 포도어깨송이, 덩굴손 자르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여덟개의 포도밭을 한 바퀴 돌고나면 포도가지는 어느새 어른 팔길이 만큼 자라있어 또 다시 덩굴손과 결순을 제거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클립에 끼워주고 이어서 포도가지의 끝순을 자르고 포도 알숙음 작업에 들어간다. 6월 하순 포도가 봉지속에 들어가기까지 쉽 없이 포도밭을 돌아야 한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주인이 얼마만큼 농작물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자주 돌아보고 자주 보살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부지런한 농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농장을 한 바퀴 돌아보며 밤사이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병이 오지는 않았는지 늘 찬찬히 살펴보아야 한다. 즉 섬세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 생각한다.

또한 모든 작물은 서로 다른 때가 있다. 심을 때가 다르고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이 다르다. 포도는 포도만의 시간이 있고 오이는 오이의 시간이 있다. 자연의 시간은 사람이 만든 시간처럼 획일적이지 않다. 시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맛과 향도 다르다. 포도는 포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고 오이는 오이로서의 상큼한 맛이 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게 심고 다르게 키워 가야 한다. 작물마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영양분을 주어야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까지 건강하게 해준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우리의 모습, 성격 모두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라 생각한다.

이제 작열하는 7, 8월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 포도는 보랏빛으로 익어 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달콤한 포도를 만날 수 있다. 한 송이의 포도를 맛보기까지 농부는 수 없이 많은 땀방울을 흘려야 한다. 이 땀방울들이 결실이 되어 맛있고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해줄 때 농부의 기쁨은



배가 되고 그 동안의 어려움들을 잊게 된다. 이제 고추, 들깨, 고구마와 같은 발작물들도 하나 둘 제 모습대로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 질 것이다.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며 농사를 짓는다. 하느님께서도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열매가 있으실 것이다.

여기 도창동 포도밭은 나를 수련시키는 수련장소이고 정화의 장소이다. 작물들 하나하나에서 나의 모습과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포도밭에서 부지런한 소비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 본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에너지 대안

“지역에서 에너지를 아끼고,
똑똑하게 쓰고, 생산하자”

이유진 님(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일본의 현대 역사는 2011년 3월 11일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다.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두 차례 방문하면서 방사능 오염은 지진이나 홍수, 폭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는 차원이 다른 재난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방사능 오염은 복구할 방법이 없다. 오염된 지역에서 모두 피난을 떠나야 하고, 회복은 시간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플루토늄의 반감기는 무려 2만 4천년이다. 인간의 시간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핵발전소를 가동해야 한다?

올해 여름 정부는 전력피크가 발생하고 전기가 부족하니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고, 고리 1호기도 가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게 사실일까?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낮은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전력소비 급증을 방조해왔다. 전기요금이 유류에 비해 값싸다보니 산업계에서 기름보일러를 폐기하고 전기로 에너지를 바꾸고 있다. 겨울이면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를 전기히터기로 가온하고, 가정용 전기 난방도 늘어나 전력피크가 발생하고 있다. 평평 쓰게 하고, 전기가 부족하니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수요관리 실패로 발생한 전력난을 핵발전소 건설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무능을 넘어 부도덕한 일이다. 정책 실패의 위험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핵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낮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전기 소비량이 늘어나고, 밤에는 잠들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톱 떨어진다. 그런데 핵발전은 한번 가동하면 24시간 엄청난 양의 전기를 똑같이 생산해낸다. 그렇게 밤에 남아도는 전기를 소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양수발전소, 심야전력, 산업용경부하 요금 제도이다. 핵발전의 특성상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핵발전이 가장 값싼 에너지라고 선전 하는데, 핵발전의 실제 비용을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지불해본 적이 없다. 핵발전소를 폐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폐로작업과 중저준위 고준위 폐기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하기 어렵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10만년 동안 보관하는 데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까? 정부가 폐쇄비용과 폐기물 처분 비용을 빼고 건설비와 연료비, 운영비만으로 핵발전을 값싼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다.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핵사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그리고 또 핵폐기물 처분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줄이려면 우리사회를 탈핵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탈핵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나?”라고 다그쳐 묻는 사람들이 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흔히들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재생가능에너지라고 여기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태양, 바람, 물, 바이오매스와 같이 재생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한라산 남쪽 중산간에 자리잡은 ‘동광마을’은 정부와 제주도가 20여 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 그린빌리지이다. 동광마을 46개 가구 지붕 위에는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주민들이 태양으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얻은 후부터 매달 전기요금으로 200원에서 1,000원 정도만 내고 있다.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이상적인 마을처럼 보인다. 하지만 막상 집안으로 들어가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종류도 많고, 크기도 크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곁은 그린빌리지인데, 사람들의 생활은 ‘그린’이 아닌 것이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각 지자체마다 ‘저탄소마을’이니 ‘그린빌리지’니 ‘신재생에너지단지’니 하며, 재생가능에너지시설 보급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지붕 위에 ‘태양광’만 올린다고 ‘그린



홈 200만호’를 짓는다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절약이 몸에 밴 주민들의 ‘삶의 변화’ 없이 재생가능에너지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신안에는 무려 축구장 93개 크기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신안군에 들어섰다.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인 시화호에 이어 새만금에도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 땅이 가지는 생태·환경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태양광과 조력발전소를 세웠을 때, 그렇게 생산한 전기를 청정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까?

에너지원에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 문제로

지금까지 우리는 ‘에너지원’을 찾아 헤맸다. 석유, 석탄, 수소, 핵, 천연가스 등. 그러나 인류가 마음껏 사용하면서 고갈되지 않고, 더구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꿈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에너지위기는 ‘에너지원’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하며, 누가 선택하고 공급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에너지체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의 전력수급 방식은 중앙집중식으로, 화력 또는 핵발전소에서 대량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전국 각지로 공급한다. 지역별 전력에너지자립도를 분석해보면 서울의 전력자립도가 3.3퍼센트에 불과하고, 광주, 대전, 대구, 충북, 전북의 전력자립도는 10퍼센트 내외이다. 반면 충남은 무려 400퍼센트가 넘고, 전남, 경남, 부산, 경북, 인천은 전력자립도가 100퍼센트 이상이다. 특정지역에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편중해 있기 때문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전력생산에 따른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또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의 38퍼센트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수도권에서 전기를 흥청망청 쓰는 동안, 누군가는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송전탑 근처에 살면서 전기 생산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고 있다.





대형발전소 중심의 전기생산 방식이 환경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역에너지가 희망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우선 에너지가 너무 멀리서 생산되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따른 문제를 잘 모르기도 하고, 모든 에너지정책을 정부가 ‘알아서’ 결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에너지공급의 주체는 거대 정유회사나 한전과 같은 독점기업이 담당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에너지생산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 정부 중심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정책은 시민들을 ‘에너지맹’으로 만들어 버렸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민들이 지금까지 국가와 기업이 독점해온 에너지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되찾아야 한다. 국가가 아니라 지역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에너지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지

역에너지는 지역에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향상을 전제로 에너지정책을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해 지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지역에서의 에너지 생산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우리 동네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면 어떤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을까? 낮 동안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 땅속 열, 농사를 짓고 남은 볏짚과 가축분뇨 같은 바이오매스처럼 지역의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자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동네에서 직접 에너지 농사를 짓는 것이다.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전기 생산, 열 생산,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열병합)하는 방법이 있다. 전기만

생산하는 방식은 주로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다.

풍력은 블레이드가 세 개 달린 수직축 방식이 일반적이는데, 1킬로와트급 가정용 풍력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최대 5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도 상용화되었다. 태양광발전기는 햇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태양광발전기는 태양전지로 구성된 태양전지 모듈을 이어놓은 태양전지판과 축전지,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된다. 지붕 위에 2~3킬로와트 용량의 태양전지판을 설치해 태양광을 인버터(전류변환기)를 통해 직류를 교류로 바꿔 가정용 전기를 공급하는 원리다. 태양광은 현재 포켓용 계산기에서부터 우주 통신위성에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강변이나 계곡 지대에서는 소수력을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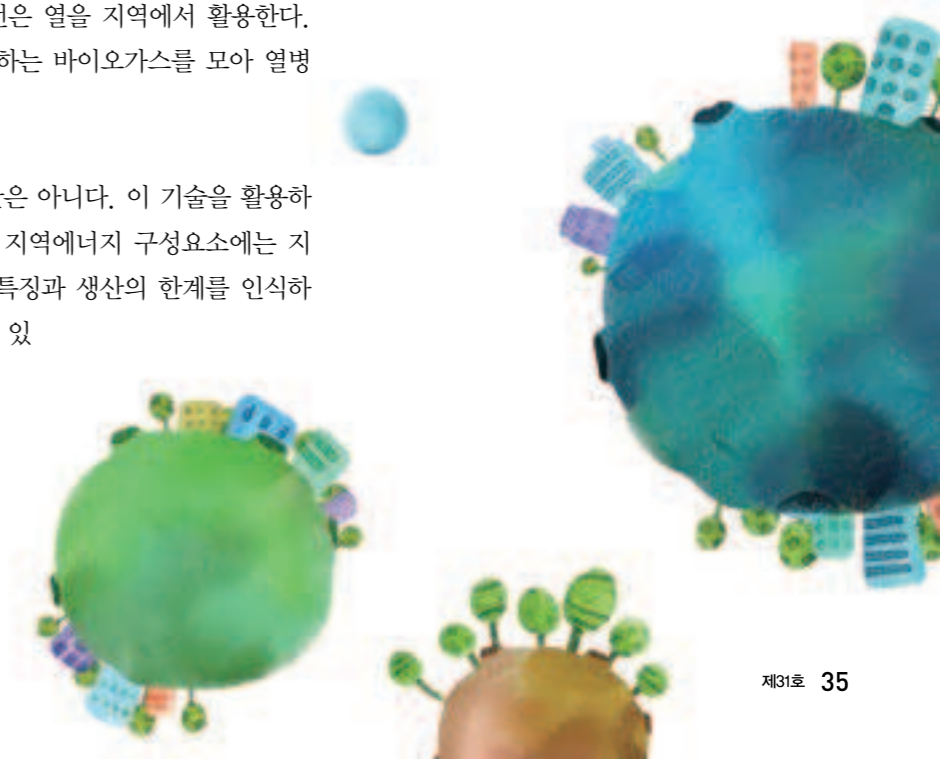
열을 생산하는 방식에는 태양열, 히트펌프, 바이오매스에너지가 있다. 태양열은 주로 온수를 생산하는 데 쓰인다. 8제곱미터 태양열집열판은 방이 세 개 있는 집에서 사용하는 온수의 2/3를 생산할 수 있다. 히트펌프는 땅속 지열에너지를 잡아서 물이나 공기를 덥혀 난방에 사용한다. 반대로 활용하면 냉각이나 에어컨으로 냉방에 활용할 수도 있다.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스토브나 보일러는 에너지 작물이나 나무를 직접 태워서 열을 얻는다. 열병합발전은 천연가스나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다. 대형 발전소는 전기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그냥 방출하지만 열병합 발전은 열을 지역에서 활용한다. 가축분뇨 메탄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모아 열병합발전을 할 수도 있다.

지역에너지는 단순히 기술문제만이 아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다. 지역에너지 구성요소에는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의 특징과 생산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에 맞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또 에너지생산자로서 뜻을 세운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잘 만든 정책과 법도 필요하다.

독일의 “100% 재생가능에너지 지역 만들기”

지난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독일에 에너지 답사를 다녀왔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레그넨. 숙소를 나서자마자 풍력발전기와 태양광발전기가 보인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다 보니 찍을 장면이 너무 많다. “이건 무슨! 밭이다 밭. 태양광 밭, 풍력 밭.” 독일에서는 전체 전력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독일 농촌의 전형적인 풍경은 너른 들판에 풍력발전기와 지붕위 태양광발전기가 있는 농가의 모습으로 변한지 오래이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와 2009년 러시아 유럽 가스 공급 봉쇄 사고를 경험한 후, 에너지 정책을 바꿨다. 에너지 공급을 핵발전이나 해외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공급이 끊기면 생존의 위기라는 생각으로 ‘에너지 안보’ 개념을 도입했다. 대안으로는 독일 땅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생가



능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다. 환경청은 <100%재생가능에너지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돕고 있다. 현재 100%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세우고 실행에 들어간 지자체는 80여개, 계획을 수립중인 지자체는 49곳이다. 전 국토 면적의 28%를 차지하며, 1,900만 명의 시민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전체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시설의 40%는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세웠다.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법을 통해 태양과 풍력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전기회사가 전량 매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연간 7~8%에 달해, 시민들은 여분의 돈을 기꺼이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에너지계획과 지역에너지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예산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절약, 홍보, 안전관리, 시설보급이라는 한정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지역에너지 운동

그러나 최근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안팎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유가 상승, 에너지 빈곤층 증가, 핵발전소와 초고압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 갈등은 지자체가 에너지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체가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효율개선 정책,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펼쳐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도 높이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지역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도 안겨다 준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원전1기 줄이기' 정책을 선언하면서 2020년까지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20%까지 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 7월에는 수원시가 '에너지 종합대책'을 통해 2015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11년 대비 10% 이상 절감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싹을 틔우고 있다.

우리 동네 에너지 농부들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자립 운동을 펼치는 곳도 있다. 부안의 등룡마을, 화정마을은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계기로 에너지 독립을 선언했고, 임실 중금마을, 산청 갈전마을, 통영 연대도도 모범적인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를 만들고 있다.



지리산 산청 민들레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모여 사는 건물에는 풍력발전기(1킬로와트)와 태양광발전기(600와트)가 설치되어 있다. 나무 합판과 버려진 접시형 안테나에 알루미늄 호일을 붙여 만든 태양열오븐과 태양열조리기로 여름에는 밥을 지어 먹는다. 민들레공동체에서 시작된 에너지자립 시도는 이제 갈전 마을로 번져가고 있다. 짚으로 집을 짓고, 단열도 강화하고 또 에너지를 적게 쓰는 생활양식을 실천하고 있다.

충북 서천에 만들어지고 있는 산너울 마을은 집을 지을 때부터 에너지를 덜 쓰도록 세심하게 설계했다. 2중 흙벽돌로 지어진 집의 벽두께는 벽돌과 벽돌 사이 공기층을 포함하여 36센티미터이다. 창문은 유리 한쪽 표면에 금속을 코팅해 단열성능을 향상시킨 로이복층유리를 사용했다. 지붕 위에는 태양열 난방



시설이 있어 급탕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설도 설치했다. 입주민들은 난방으로 기름보일러 외에 목재펠릿보일러와 구들장벽난로를 선택할 수 있다. 부안군 하서면에 자리잡은 등룡 마을은 30여 가구에 5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등룡 마을에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마을의 총에너지 50퍼센트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메탄·에탄올 등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생물·미생물 자원) 등으로 대체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자립을 선언한 등룡 마을이 중점을 두는 것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이다. 마을주민들은 집집마다 사용하는 전기량을 기록하고, 백열등을 고효율 전구로 교체하고, 멀티탭으로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지금도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의 60퍼센트는 마을 안에서 생산해낸다. 등룡마을에 설치된 시민 햇빛발전소만 해도 시간당 36킬로와트를 생산한다.

이렇게 농촌에서 에너지 자립을 꿈꾸는 마을들이 모여서 지역에너지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해마다 두 차례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 적정기술 네트워크도 돋보인다.

자립하는 삶을 만드는 적정기술 센터(<http://cafe.naver.com/selfmadecenter>)와 흙부대생활기술네트워크(<http://cafe.naver.com/earthbaghouse>)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난로나 화덕을 만들어 농촌에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석유와 핵에너지로부터의 독립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다. 이들은 단 한 가지라도, 에너지 절약이든 생산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에서부터 대안이 마련된다고 믿는다. 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이 높은 난로나 태양열 온풍기를 만들 수 있는지

서로의 비법을 공유하며,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집단 지성을 통한 에너지 대안 찾기 실험이 이 땅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도시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서울의 동작구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올해부터 절전소 운동을 시작했다. 주민들 50여명이 모여 각 가구의 지난해 전력사용량을 도서관 벽면에다 붙여놓았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전년 대비 줄어든 전력사용량을 막대그래프로 표시하기 시작했다. 당장 집집마다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전년 대비 줄어든 전기 차감액을 '성대골 절전소'라고 적힌 큰 그래프에 차곡차곡 쌓아올려 마을에서 지난해보다 줄어든 에너지량을 표기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절전소이다. '절전' + '발전소', 에너지 절약이 곧 에너지 생산이라는 뜻이다. 이제 성대골에서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라는 상식이 자리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절전소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절약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함께 모여 기후변화, 핵에너지, 석유 위기에 대해 공부하고, 임실 중금마을로 답사도 다녀온 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함께 토론을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제 성대골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마을도서관과 마을학교 건물에 대해 단열개선 사업을 하기로 했다. 창호를 바꾸고 단열재를 보강해 에너지를 덜 쓰는 건물로 리모델링 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에너지 생산을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있다. 성대골의 도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올해 여름, 어린이 도서관의 전기요금이 16,000원이 나왔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원래 성대골도서관 정도의 건물에 태양광을 올려 전기소비량을 자립 하려면 3kW급이 필요한데, 에너지 소비를 줄였기 때문에 지금의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면 1kW만 올려도 자립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전기를 덜 쓰는 삶으로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동작구 성대골, 금천구 시흥4동을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로 지정했고, 강동구 십자성마을, 한솔파크아파트, 도봉구 방아골, 방학 우성2차아파트, 성북구 정릉사회복지관을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한 준비 마을로 지정했다. 이제 도

시에서도 에너지 농부들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를 바꾸고, 생활을 바꾸자.

우리는 지금까지 더 나은 에너지원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에너지에 대한 생각 자체에 있다. 지구상에서 무한히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꿈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만든다. 아껴 쓰고 잘 써야 한다. 또 지역에서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에너지체제도 바꾸자. 지역에 기반을 둔 에너지 생산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자. 우리들의 아름다운 공동체인 '마을'에서 에너지 문제를 고민하자. 답은 지역에 있다.

이유진
(녹색당 당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leeyujin2010@gmail.com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녹색연합에서 지역에너지 운동을 했습니다. 국내외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사하고 연구해 <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서울시 <원전기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했고, <원전기 줄이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당원으로 탈핵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준비하는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GREEN ENERGY



강정의 평화!

- 강정마을에서



박 에제키엘 수녀

“주님의 영이 우리를 다그치신다!! 세상의 절박한 곳으로~~~”

성가소비녀회 제15차 정기총회 주제는 처음 대할 때부터 늘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함으로 시작되었고 그 불편함은 지금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인 열정과 현실적인 사도직을 핑계로 안주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관구총회 대의원 활동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숙고하고 모임을 통하여 나눔을 하면서 마음 안에서 작은 불씨가 밝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 하느님의 성령께서 내게도 당신의 계획을 시작하심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어쨌든 시작은 그랬다. 제주교구 강정공소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일찍이 강정마을 해군 기지에 대한 문제와 갈등을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짐이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는 가운데 8월 8일 강정마을에서 매일 있었던 생명평화 미사에서 성체가 훼손되었다는 소식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언가 마음 안에서 쿵하는 떨어짐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군부 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성체훼손, 종교적 탄압의 현장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픔에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열기를 감당하지 못해 부랴부랴 짐을 챙겨 들고 수녀원 휴가를 청해서 강정마을로 향하게 되었다. 그



때까지는 나와 같은 증상(?)의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고 그러면 더 한층 힘이 모아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 힘과 희망을 모아 줄 것이라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참혹하리만치 조용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강정마을은 3명의 예수회 신부님들과 문정현 신부님, 그리고 몇 명의 활동가들의 힘겨운 투쟁이 이어지고 있을 뿐 이었다. 떠들썩한 마스크의 소식과는 달리 너무도 조용한 시위와 외부인으로서의 달랑 혼자뿐인 나의 강정마을에서의 짧은 현장체험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자신이 그럴듯한 시위를 한 것도 썩 벌어진 활동을 한 것도 아니다. 그저 아침 6시30분부터 시작되는 생명평화 100배(절) 기도로 녹작지근해진 몸을 이끌고 11시 생명평화 미사를 준비하고 미사봉헌과 묵주의기도, 그리고 공사장 정문 앞에 앉아서 주먹밥과 냉이국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주구장창 레미콘이 들어가는 공사장 정문 앞에 저녁 6시까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것뿐이었다.

해군기지는 공사장 정문과 기지대 정문이 있는데 주로 기지대 정문은 예수회 신부님들과 활동가들이 지키고 공사장 정문은 강정공소 회장님과 문정현 신부님, 영화 평론가 양윤모 선생님이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공사장 정문과 기지대 정문에는 삼성과 대림물산에서 고용한 덩치가 산만한 용역들이 공사장 안쪽



과 무선을 통해 상황을 살피면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보고가 되는 것 같았다.

문제는 레미콘이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들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삼성과 대림물산에서는 공권력의 도움을 청하게 된다. 그러면 각 지방에서 들어온 경찰과 의경들이 200~300여 명씩 우리를 포위하고 고착하고, 연행하고 정문 앞에서 끌어낸다.

그런 과정에서 젊은 활동가들과 몸싸움이 시작되고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과 구타와 연행, 그리고 그것을 따지기 위한 격렬한 시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격렬한 시위조차도 경찰과 대한민국 법이 인정한 폭력(저들은 이것을 공무집행 방해라는 법적인 언어로 규정한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고 대부분은 강제로 고착되어 버리고 만다. 그렇게 동물처럼 끌려가서 고착되면 레미콘 15대~20대를 들여보내고 나서야 고착에서 풀려나오고 만신창이가 된 활동가들과 신부님들은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마치 짐짝처럼 널브러져 있게 마련이다. 매일 매일이 이런 순간들의 반복이고 그것이 강정에서는 일상이다.

처음에는 새까맣게 내려오는 경찰들과 의경들이 너무 무서웠고 두려워서 눈도 제대로 뜯 수가 없었다. 수도복을 입고 앉아서 이래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천주교회가, 성가소비녀회가 혹시 정부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게 될까 싶은 두려움에 마음이 먼저 만신창이가 되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하루하루 미사와 묵주의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 성모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이 사람들과,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해 함께 하신다는 굳은 믿음이 생기면서 그런 두려움이 점점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어가는 변화를 자신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었다.

하루의 대부분이 공사장 정문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소름끼치는 대치상황이 아니면 정문을 지키고 있는



용역들과는 간식도 나눠먹으면서 대화도 하게 된다. 그럴 때 그 청년들은 21세기의 대한민국 청년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육지에서 섬으로 직장을 구해들어 온 시대가 낳은 불우한 청년들이다. 그들의 선한 웃음과 어쩔 수 없음으로 느껴지는 눈빛을 보면서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선한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평화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번은 해군기지 측의 공사가 일찍 마무리 되던 날 우리도 파장을 하고 모처럼 공소회장님과 서귀포 일일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걸어가는데 웬 시커먼 청년들이 우리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 낯은 익는데... 순간 아~~~매일 security라고 쓰여 있는 정복을 입은 채 우리를 지키던 삼성, 대림물산의 용역청년들이었다.

이 별쫄함이라니!!
다음날 아침 백배를 하고 공소로 가는 길목에서 여전히 정문에서 있는 어제의 청년들이 우리에게 묻는다. “수녀님~~ 어제 무슨 장 보셨어요?” “우리는 그저 이웃 청년을 만난 듯 심드렁하게 답한다.” 아니오~~ 너무 늦게 나갔더니 살 것이 없어서 그냥 왔어요.” 청년들이 또 묻는다. “수녀님~~오늘도 정문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그러려고 서울에서 왔는데” “아~네!!”. 가슴이 아프고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왜 생겨야하는지를 생각해 했던 일이었다.

강정에서의 일상은 그렇게 시작한다. 가끔은 아침에 한라산 허리를 넘지 못한 구름 때문에 한바탕 비가 쏟아지면 그 비를 맞으면서 강정천 다리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지향을 두고 100배를 하고 공소로 돌아오는 길에 주인을 알 수 없는 무화과나무에서 그날그날 주시는 열매를 몇 개 따서(이건 공소회장님이 전담으로 함) 돌아와 아침을 먹고 공소회장님과 함께 전날 몸싸움하느라, 흠발에 내팽겨쳐져서 걸레처럼 되어버린 신부님들의 제의를 빨고 꿰매고 단추 달고 해서 준

비하고, 필요한 얼음물, 모자, 수건 등을 챙겨서 11시 미사를 준비하러 나가면 저녁 6시까지 계획할 수 없는 하루를 보내다 돌아오게 된다.

매순간 어떤 상황이 될지, 어떤 사건이 생길지 조마조마 하고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시간들이 흘러가지만 마음만은 있어야 할 곳에 있음으로 인한 평화로움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수밖에 없다는 안도감과 짜~인한 체험의 시간들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이었다.

과격한 충돌과 몸싸움~~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레미콘을 한 대라도 막기 위해 레미콘으로 올라가서는 하루 종일 더위와 시멘트 독을 마셔가면서도 몸으로 맞서는 예수회 신부님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 피 끓는 젊은이들이 짐짝처럼 들러지고, 끌려가면서도 비폭력으로 대응하며 평화를 지키려 노력하는 지킴이들과 함께하는 연대의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게 하는 겸손함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그저 나는 나의 시간을 조금 보태고 나의 작은 마음을 조금 얹어서 함께하고 있음으로 서로를 의지하는 것뿐이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젠 내게도 물 밑을처럼 밀려드는 경찰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침착하게 바라보는 용기가 생겼다. 침묵으로 평화를 부르짖고, 아무 저항 없이 끌려 나가면서도 그들에게 바위 같은 무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강정에서 이루어지는 비폭력적인 평화 활동인것 같다. 경찰들도, 용역들도 우리들의 눈을 끝까지 마주하지 못한다. 그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이고 힘없는 백성들의 피 끓는 애통함이었을 것이다.

머리꼭지가 녹을 것 같은 맹렬한 태양 아래서 온 몸의 수분이 증발하는 듯 한 아련함과 아스팔트를 녹일 듯 한 열기가 전신에 스멀거리면서 달려들어 마치 몸을 데일 듯 한 쓰라림도 참아가면서, 때론 고급 승용차가 에어컨 빵빵 틀면서 매연을 뿜어대며 도망가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이 쏟아지는 그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건 그 어떤 이념도 정치적인 색깔론도 아니었다. 이 시대를 살아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천년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불의하고 억눌린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마음이고, 물질이 사람을 넘어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세태를 함께 지키기 위한 작은 연대의 마음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라는 믿음을 실천하고 싶은 의지일 뿐이었다.

아직도 심장이 무거운 돌덩어리로 꽉 눌러져 있는 듯해서 무언가를 풀어놓는다는 것이 어렵다. 이런 강정앞이는 비단 자신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강정을 잠깐이라도 다녀간 사람들, 생태가 파괴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곳곳의 현장을 다녀간 사람들이면 누구나 겪는 가슴앓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짝 벌어지게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절절히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가슴앓이가 생기는 것 이리라.

지금도 눈을 감으면 가슴으로부터 두근거림이 시작된다. 기지대 정문 앞에 제의를 입은 채 작렬한 태양을 온 몸으로 받고 비 오듯 땀을 쏟고 계신 신부님들과 지킴이들,,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위를 “해군기지 결사반대”라는 노란 깃발을 자전거에 꽂은 채 공사장 정문 앞으로 모여드는 젊은 지킴이들, 흰 수염을 바람에 나부끼며 발치부터 온 힘을 끌어 올려 정수리 끝에서부터 고하는 함성으로 “강정의 평화! 강정의 평화! 강정의 평화!”를 외치는 노사제의 피 끓는 절규의 소리가 들린다.

그들이 원하는 건 그저 강정마을이 강정마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 제주가 그냥 평화의 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뿐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강정마을 사람들의 강정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은 우리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고 있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6년 전과 다름없이 매순간이 위기고, 전쟁터인 삶을 살아간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군기지는 필리핀과 오키



나와 등지의 해군기지를 상실하게 될 미국이 동북아에 군사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해군기지 건설은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고, 군사기지 조성으로 파생되는 여러 현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것이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지금의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으로 있을 때 해군기지를 반대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지금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과 어찌보면 그렇게 똑 같은지 신기할 정도이다. 황당한 것은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정반대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왜 입장을 바꿨는지 한마디의 말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강정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해군기지 건설은 이루어지고 있고 기지 건설 후 맞게 되는 위협과 책임은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면서도 침묵을 강요당하는 힘없고 가난한 백성이 짊어져야하며 대기업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본 앞에 무릎을 꿇고 충실하게 섬겨온 자본가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니라고 한들 아닌 것이 될 수 없는 현실이 주는 막막함을 넘어서, 그저 우리는 그들에게 연대의 마음과 함께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작은 움직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10,29,37>

당신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 제주 성이시들복지의원

이 그레이스 수녀



소중한 당신과 만났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생명 안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 움직이는 사랑의 본질을 담고 있는 생명은 역동적인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 생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는 곳 중 하나가 호스피스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삶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한 사람을 위해 다각적 접근을 통해 팀원 모두는 온 몸과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 소중한 생명 하나를 지상에서 영원한 천상으로 보내드리고 교량의 역할을 하는 희망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산고의 과정으로 힘들던 산모가 아기를 낳아 품에 안는 순간, 모든 산고를 잊고, 환희와 행복감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 곳 이시들 호스피스 병원에서 환자와 가족 모두 죽음을 수용하기까지 겪어야 하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한 생명의 씨앗이 발아의 과정을 거쳐 죽음을 통해서만이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향할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된다.

희망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소임을 할 수 있음은 큰 은총이고 축복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향하도록 안내자로 함께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의 안내를 받으며, 기쁨과 평화, 행복이 넘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향할 희망의 꿈을 놓지 않도록 믿음을 키워주며, 삶을 추스르며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에 의뢰된 환자와 그 가족 대부분은 투박하고 거친 어투, 희망 없는 지친 모습들로 찾아온다. 그 모습 속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 외로움의 시간들을 보내 왔는지 한눈에 느낄 수 있어 저절로 연민(Compassion)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여러 가지 요인들과 관련되어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

려진 표정이 통증과 증상조절, 팀원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조금씩 평안함과 미소를 짓는 표정, 부드러운 말씨, 감사, 기쁨, 행복, 용서, 평화 등 아름다운 정서가 되살아나며 생활하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지켜볼 때 마다 우리들을 통해 죽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느끼며, 거룩한 죽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게 되고, 주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꺾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이사42,3)시며 생명을 지켜 주시는 하느님,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여관 주인에게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루카10, 30; 33-35)라고 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좋은 지침서가 되고 있다. "죽음이 가까울 때 그리고 죽는 그 순간이 가장 생명이 축복을 받고 찬양을 받을 때이다. 자연적인 죽음을 맞는 이들에게조차 이 순간에는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하며, 도움도 주어야 한다."(의료현장, 115항)

이렇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적절한 방법을 찾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때때로 죽음의 신비 앞에서 무력감과 인간의 확신마저 흔들림을 경험하지만 깊은 내면에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평화와 신앙이 육화되는 과정을 스스로에게 상기 시키며, 오늘도 곳곳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길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팀원 모두는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 생명이신 하느님의 힘을 입고,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받으며, 성실하게 희망의 한걸음을 내딛는다.



생명은 움직이는 것

한 하상바로로 수녀

환경을 살리는 삶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어머니 가슴과 같다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내 고향 강원도, 집 앞에 있는 산 큰메산은 봄에는 진달래로 지천이고 여름에는 건너방 큰 가마솥에 옥수수를 삶아놓고 오고가는 이웃 분들이 와서 함께 맛있게 먹고, 가을에는 다람쥐들이 도토리며, 밤, 자작나무열매 사냥에 열중하는 모습을 가깝게 보면서 자랐다. 겨울에는 “배 아프다. 그만 먹어라” 어머니의 걱정을 무릅쓴 채 처마 밑에 달린 고드름을 얼마나 맛있게 따 먹었는지 모른다. 오빠들과 뒷동산에 올라가면 바위위에 나를 앉혀놓고는 “기다려라, 오빠가 가제 잡아올게!” 물이 흐르는 계곡의 돌맹이를 뒤집어 돌 속에 숨어있던 가제를 몇 마리 병에 잡아와서는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어깨를 으쓱하던 모습, 세상은 온통 나에게 행복한 놀이터였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면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넉넉함과 여유, 형제애를 배우는 생명의 학교였고 교과서가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했던 나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환경문제는 자연재해라는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나날이 수위를 높여가며, 불안과 두려움으로 세상을 온통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이제 환경을 살리는 삶, 생태를 살리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 창조질서에 위배되지 않게 사는 삶 등 환경과 관련된 수많은 용어들이 너무나 편안하고 친숙하게 들려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지향하는 수도회의 비전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변화에 대한 “도전정신”과 “실천으로 옮기는 이동”이었다. 환경 살리기는 곧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그 생명 살리기는 내가 내 자리에서 끊임없이 올바른 것을 선택 하도록선택적 움직임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생명이 무엇이나? 하고 질문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움직임” 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살아있다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는 나 역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일 때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를 느낀다. 기발하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실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잘난 척하며, 소리를 내는 마음 안에서 나를 꿈틀거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동하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계속 살고자 하는 나의 일상을 들여다 보았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하루하루 만들어놓은 피조물들을 보며 참으로 보기가 좋았다. 라고 만족해 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에서 당신 모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아마,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하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과 함께 공존하도록 만들어놓으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역행하고 있는지 나는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다.

첫째는 “가족”이라는 환경이다. 가족이라는 구성원은 부부를 통해 상호교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며 건전한 가족문화와 창조보존의 책임을 지며,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창조질서의 가장 아름다운 뒷밭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의 핵가족화는 상호교류의 부재에서 오는 정서적 빈곤함과 개인주의로 치우치고 말았다. 이에, 가정공동체를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었다. 많은 가정들이 건강해진다면 생명을 살리는 삶은 저절로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가족이라는 혈연적 관계가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과는 달리 마치 조직의 구조처럼 뗫어져 의무적이고 수동적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락되었고 가족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낙태, 이혼, 물질과 쾌락, 가정 폭력 등은 또 다시 청소년문제로 거듭되고 문제가 가중되면서 사회문제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텅밭의 혼란은 인간 생명의 가치와 삶의 질을 부와 물질, 쾌락과 만족이라는 이성적이고 감각적으로 타락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생명 살리기는 가정공동체 살리기이다.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노력이다. 즉, 건강한 가정은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최상의 환경을 살리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 “실천적 움직임”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현상 안에서 나 중심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향한 넓은 지평의 전환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면 나의 위치에서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늘 깨어 의식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를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기도할때마다 가난한 이들을 잊지 않고 초대하여 바치는 습관을 가졌다.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집회에 참석은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군중 속에서 있으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가난한 여성들의 깃발한 삶, 존중받지 못했던 그들의 생명, 슬프고 힘겨웠던 그들을 위해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인 여성의 성을 위협받고, 깃발한 채 살아 온 죽음의 생명을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 함께 힘을 모으려는 나의 마음 즉 몸과 마음이 그들에게 이동하는 실천적 움직임이다.

세 번째는 일상 안에서 이웃과의 교류라고 생각한다. 즉 나눔의 생활이다. 물건과 물, 전기를 아껴 쓰고, 환경을 생각하며 최소한의 것을 취하고 사용하면서도 진작 함께 살거나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인색하고 무관심한 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조금은 나와 생각과 행동이 다르고, 정신적, 육체적 약함을 가진 이웃에게 열려있는 존재로 이동하는 움직임이다. 굳이 생명을 살린다는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의 사고와 신념, 가치들을 내려놓고 이웃을 향해 나침판을 놓는 것은 신속



하고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낳지 않으며, 끊임없는 자기 내어줌에서 오는 기다림과 인내심의 이동이다. 세상의 피조물 중에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 그 존재를 사랑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도 같으며, 이웃의 약함과 가난함으로 내려가는 강생의 영성과도 같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삶은 이웃을 향한 나의 희생과 부단한 인내와 견뎌서 오는 사랑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선택은 멀고 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나의 자리에서 가능한 일이다.

위의 세 가지를 굳이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연결 짓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나 중심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한 연민의 마음과 넓은 지평을 갖고, 건강한 가정공동체 만들기과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 일상에서 이웃과의 성숙한 교류를 보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할때, 작고 결과물이 없어 보일지라도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느님은 보잘것 없는 나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을 더 아름답게 살기위해 나의 생명과 다른 많은 생명이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도록 나를 초대하셨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아낌없이 태워줘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빛을 발하는 초가 있었습니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어느 날 밤
주인은 촛불을 발켜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니다.
“주인님, 이렇게도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흑시라도 재불이 꺼져
주인님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찌살려고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
내가 널 안전하게 데리고 갈테니 말이야.”
“무엇을 하살려고요?”
“등은 곳에 올라 너의 빛을 저 바닷가에 있는 배들에게 비추어 줄려고....”
“이렇게 작은 불빛이 도움이 되겠어요?”
“몸을 일으키니, 너의 빛을 보고 저 멀리 바다에 있는
배들도 안전하게 부두로 돌아올수도 있어.
어둠 밤에 너의 빛은 그저 보잘것 없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니 너는 너의 몸을 태우기만 하면 되단다.
아낌없이 말이야.”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네

- 내가 그곳에 가는 이유

조 예수의 소피아 수녀

사람들은 말한다. 소피아는 나가 돌아다닐 때는 펄펄 날아다니다가 집에만 돌아오면 아프다고, 맞는 말이다. 힘든 여정을 통해 육신이 지치는 점도 있겠지만, 피 흘리는 현장에서 부르는 소리가 내 귓가에서 늘 애절하게, 애타게 들려오기 때문에 나는 힘들다. 그러나 힘들어도 그곳에 가야하는 것이다. 당연히 다녀오면 몸은 지친다. 끝이 없는 길이다.

갈수록 확산되는 처절한 파괴와 억압, 자본의 기

만스럽고 뻔뻔한 생명에 대한 멸시는 나로 하여금 힘들면서도 나가 그곳을 찾아가보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감, 긴박감으로 나를 재촉한다. 이젠 내 나이 오십줄로 들어서고 보니 남은 날이 살아온 날보다 길지 않다는 긴박감이 더 나를 이끌고 다니는지도 모른다.

내가 바쁜 일들을 미뤄두고 다녀야만 하는 이유, 하나.



그것은 이른 아침 성당에 홀로 앉아 기도를 드리거나 한 밤중에 기도를 드릴 때 나의 지향은 항상 지구를 생각한다. 지구는 나에게 인격체이다. 어떤 때는 피 흘리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

가끔 깊은 기도 중에, 또는 잠시 졸고 있을 때 나는 ‘소피아!’하고 낮고 애타게 속삭이는 음성을 들곤 한다. 화들짝 깨보면 성모님께서 언제나 피 흘리는 아드님을 두 팔에 안고 나를 쳐다보시며 내 귓가에 낮게, 그러나 강렬하게 내 이름을 부르신다.

“소피아!” 하고, 그리고 나와 눈을 맞추고는 더 이상 아무런 말 씀이 없다. 눈물이 흐른다. 뱃속 깊은 데서부터 흐느낌이 올라온다. 딱히 웬지 모른다. 그냥 아무 힘도 없어서 내가 뭔가를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응답을 드리며 흐느끼고 있는 나를 발견할 뿐이다. 나에게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눈빛으로 이미 숨진 아드님의 시신을 안은 채 간절히 내 이름을 부르시는 성모마리아.

난 지구의 엄마, 예수의 엄마, 우리 모두의 엄마의 그 슬픈 눈빛을 떠올리면 언제든 눈물이 난다. 아랫배에서부터 느껴지는 길고 깊은 슬픔으로, 내가 어찌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그것이 나의 화두이다. 어떤 때는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불안감으로 시달릴 때도 있다. 이러다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 때 하느님을 어떻게 뵈옵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곤 한다.

뭔가를, 내 작은 힘이라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움직여야 한다고, 그 뇌임이 내 혀에서 돌고 있고 마치 그 뇌임이 모터인 듯 불현듯 길을 떠날 뿐이다.

밀양, 삼척 그리고 대한문.(혜화종답, 현대울산철탑, 강정 등

이미 아시는 현장 모두를 포함)

그곳은 죽음이 있는 자리이다. 눈물의 호소와 울부짖음, 절규가 있는 자리이다. 그래서 그 죽음의 행렬을 애도하며 좌절의 구름을 걷히게 하고자 나는 그곳에 간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그곳에 ‘있는 것’이다. 밀양이란 지역에서 일어난 이치우 어르신 분신사건, 그것은 또 하나의 잠자는 나의 두 다리를 일깨운 사건이었다. 도대체 왜, 일흔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무엇을 세상에 이야기하고자 그런 극적이고 처참한 죽음을 불사하셨던가? 이치우 열사라고 현장에서는 부른다.

하지만 그렇게 현장을 드나들고 누구보다 더 열성적으로 간다는 소리를 듣는 나로서도 ‘열사’라고 부르거나 ‘동지’라고 부르는 호칭에는 아직 쉽게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 나는 새만금 공사로 인해 심한 좌절을 겪었다.

그래서 뉴스에서 ‘송전탑’이니 ‘분신’이니 하는 내용을 슬쩍 접하면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있지는 않았다. 다만





그 연세에 죽음을, 그것도 무언가 알려야한다는 절박감으로 선택했을 분신자살. 그것은 새롭게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져다주었다. 함께 해야 하는 무엇. 오래 전 내 열정의 발화점은 '새만금'이다. 그곳에 방파제를 세워 전 세계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아름다운 갯벌이 사라진다는 절박한 현실 이면에 숨겨진 자본과 권력의 음흉한 담합을 알게 되었고 이에 끊임없이 팀을 이루거나 외부 시민단체 방문 팀에 합류해서 방문하고 연대하기를 몇 번이었던가? 그 먼 새만금을 얼마나 많이 다녔고(지금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횡수였지만) 사회참여는 얼마나 열성적으로 했던가?

국내는 현재나 그때나 여전히 수많은 짓밟힘과 가증스런 파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새만금 이후 나의 좌절은 너무나 심각했고 나의 육체적 좌절과 함께 인생의 주기에 찾아오는 중년기 위기, 그리고 나의 성격이 빚어낸 주변 환경, 관계 안에서의 좌절 등으로 모든 좌절이 한꺼번에 밀어닥쳤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어느덧 차분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을 무렵 광우병 소고기 사건으로 다시금 대규모의 촛불집회가 국내를 들끓게 했다. 주방소임을 핑계로 나는 한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힘들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서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에는 저항하고 '가지 않을 거라면 비판도 하지 말라'고 했다. 불의의 사안에 대해 어떤 저항이라도 해야 하고 생명파괴나 가증스런 탐욕에는 함께 연대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은 여전했으나 나의 좌절이 끝나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일어설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용산참사 사건이 터졌다. 그야말로 터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애써 눈감았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구나. 겨울의 어느날 청계광장에서 있었던 미사에 참석했다. 그냥 의례적으로 참석했던 것이다. 언제나처럼 피해가족들의 증언이 있었다.

처절한 절규였다. 그런데 내 귀에는 춥고 힘든 나머지 얼른 끝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공감이 잘 되지 않았다. 이미 언론이나 시위(이 표현도 발음하기 힘들다)마당에서 술하게 발언하였던 까닭에 처절한 슬픔보다는 발달된 언어 표현이 더 강했기 때문일까? 그러면서도 가족을 잃은 그 끔찍한 겨울의 가족들의 심정을 공감하기 시작했다.

아, 난 이제 들어가면 따뜻한 방이 있고 밝은 공간에서 평온한 일상을 살 것인데 저분들의 남겨진 공간과 삶은 어떠한가. 이어서 권력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모여 시위하고 기도해도 끝내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야마는데...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뱃속 깊은데서 끓어오르는 울음이 올라왔다. 새만금의 좌절과 함께 이런 노력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지난 허탈감과 허무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시위에 연대하고 기도와 카메라로 현존하면서 수도복의 위력을 보여주려 힘들게 다녔던가.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권력과 자본은 아무 쓸데도 없고 명분도 변변치 못한 새만금 공사를 이루어냈고 지금은 흉물스런 모양으로 갯벌을 죽인 채, 갯벌을 생계터전으로 삼았던 어민들을 죽인 채 버젓한 존재이유도 없이 그렇게 누워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미사에 참여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울음이 끓어올라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오는 흐느낌을 의식하면



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느님, 저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리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것이고 이렇게 짓밟힌 존재들은 화려하게 타오른 불꽃너머로 주저앉아 잿더미 위에서 울부짖겠지만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 이들을 잊고 말겠지요. 당신만이, 오로지 당신만이 이들을 구해주시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권력자의 마음을 돌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한참을 울었다. 돌아와서도 울었다. 지금도 눈물이 난다. 무력감. 좌절은 나에게 무력감을 안겨주었고 이 무력감의 체험은 나의 열정을 삽시간에 차갑게 식혀버렸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길을 잃고 헤매었던 얼마간의 과정을 요약삼아 내가 잃었던 길을 다시 찾은 것이다.

밀양, 이치우 어르신들의 분신 이후 세상은 겨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첫 걸음은 장상연합회 탈핵위원들과 함께였다. 2012년 4월이었던가? 아직 봄인데도 땀을 흘릴 만큼 더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외롭게 제한된 환경에서 싸우던 밀양의 가르멜 수녀님들의 환대가 있었다. 어렵게 장상연합회에 연대 동참을 요청하신 우리 수녀님들이 동영상과 PPT자료로 그동안의 과정과 상황을 알려주셨다. 바드리 마을 입구의 움막과 곳곳에 설치된 움막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가르멜 수녀님들께서 싸주신 김밥을 받았고, 손수 만드신 빵도 받아왔다. 눈물겨웠다. 그분들의 그동안의 외로움, 주민들의 외로움을 뼈 속 깊이 느끼

고 돌아왔다.

송전탑 사건의 본질은 역시 권력과 자본의 횡포이다. 이 두 암흑의 세력은 항상 보도권외지역을 택한다. 주민들이 대부분 노인인데다가 산골이라서 언론에 노출되기도 어렵고 함부로 대해도 관찮을 지역을 선택한 것이다. 송전탑은 핵발전소로부터 대도시의 눈부신 그리고 미친듯이 써대는 전력 공급을 위해 세워지는 수천만 볼트의 전기 공급선을 위한 것이다.

그 송전탑 밑에서는 뱀과 개구리(파충류가 가장 전자파에 민감하다고 한다.)부터 사라진다. 그리고 인간뿐 아니라 어느 생명체도 건강하게 살 수 없고 소음은 말할 수



없이 큰 장애요소이다. 왜, 도대체 왜 그 고통과 훼손과 박탈을 순진무구한 생애를 살아온 밀양 어르신들이 감당해야하는가. 거기에 보상금 문제로 송전탑 사건을 폄하시킨 언론의 비굴하고 구린내나는 압삽함이 끼여 있다. 이것은 '국제화'라는 이름하에 벌어지는 자본의 탐욕이다.

자본주의 안에서 어떤 선(善)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성이다. 존엄한 인간. 그리고 생명들의 유기성. 그 가능성을 믿고 싶다. 오늘날 우리는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의 하나가 '생태'라는 말이다. 생태계 안에는 치열한 생존경쟁과 먹이사슬이라는 잔혹한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생태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서로 연관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호의존적이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인간만이 연관성보다는 자기중심적 삶의 자세와 사고를 가지고 모든 존재를 '도구화'한다. 생명 그 자체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도구화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이다. 인간마저 도구적 존재로 인식되어 취급되는 사회. 그 사회는 이미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사이클에 들어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척, 그리고 강정, 콜트콜텍, 울산 현대자동차 등등 국내의 곳곳에 수많은 약자들의 흐느낌이 묻어있는 이 땅, 다행히 재능 교육의 여민희, 오수영씨는 해화중탐에서 내려와 복직되었으나 참복직인지는 아직 지켜 볼 일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 노동자들의 눈물, 죽음, 가족들의 아픔, 거기에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부당한 임금구조 등에 대해 깊게 본다면 '볼 수 있다', 악의 구조적 횡포를.

악은 신자유주의경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들어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과잉독점이윤을 안겨준다. '자유'라는 위험한 이름은 그렇게 빈부격차를 크게 벌여놓고 전 국민의 90% 이상을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에 던져 넣고는 기름진 배를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일들이 대놓고 자행되는 이 시대에 우리 여성수도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린 역시 '존재 사도직'이다. 참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분명해야한다.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한 갈망과 열정,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수도자. 그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품어 기도하는 자, 이 세상이 창조주 하느님의 선물임을 받아들인다면 어찌 이런 불의를 못 볼 수 있겠는가?

불의 앞에 당당하게 '옳지 못함'을 온몸으로 저항하는 예언적 수도자. 의식주, 노후를 보장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자리잡게 하기 위해 어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도, 그래도 나는 믿는다.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명, 그 따뜻한 온기를. 그 부드럽고 다정한 희망을. 자본과 권력의 횡포, 그 내면 안에 깊숙이 숨겨져 어둠을 틈타 세상을 사정없이 할퀴고 짓밟고 있는 이 악마적 흐름을 작고 작은 이들의 연대적 힘으로 막아낼 수 있음을. 종내는 그 행렬을 막지 못할 지라도 적어도 어떤 '행동'을 취했으므로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마지막 날 하느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선을 이루고자, 생명을 선택하고자 애썼음을 던지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다.

마리아, 우리들의 어머니, 지구의 어머니, 모든 존재의 어머니는 나에게 개별적으로 부르셨다. 나지막하나 절박한 음성으로, 내 이름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아직 완전히 모른다. 그저 내 눈 앞에 보이는 불의에 대해 내 나름대로 행할 수 있는 만큼 행하고 끊임없이 연민으로 기도할 뿐이다. 외롭고 슬픈 이들이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위로라도 되고자.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있던 여인들처럼, 비록 떨쩍이 서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익명의 군중들처럼 고통 중의 예수께서 외롭지 않도록 나의 최선을 다할 뿐이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완성해주시리라 간절히 믿는다. 그것이 나의 신앙이요, 복음 선포이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손을 들어주신다는 소식. 그분이 그들의 절규를 가슴 아프게 접수하여 모든 사람이 그분의 손과 발, 그리고 품이 되어주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다.

기도의 순간, 깊은 묵상의 순간에 여전히 그분은 내 이름을 부른다.

“소피아!”

나지막하고 간절한, 그러나 아주 작은 음성으로. 그리고 나는 내 앞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젠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없다. 아무 힘도 없는 미약한 존재인 내가 하느님이신 그분의 파견을 매일, 매순간 받아서 '그곳에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매순간 파견된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돌아오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젠 좌절이 없다. 지치지도 않는다. 함께 하는 이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영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수술되어지는 ‘강생’을 꿈꾸고, 모세의 ‘거룩’을 만나다

김 화밀리아 수녀



나이 먹은 강생

1. 나는 강생과 함께 나이를 먹었다. 그러다 현실의 냉혹함을 알게 되었다. 긴박했으므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청하였다. 화살기도로 순간의 강생을 수술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 절박함은 하나씩마다 하나의 가치 있는 주름라인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내 생(生)의 시간이 진행되는 것을 어느 상황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다짐했으므로, 어쩔 수 없는 것은 흔쾌히 포기하는 기분 좋은 에너지도 더불어 얻었다.
살아온 것과 살아갈 것을 연결시키는 현실은(now), 매 순간마다 긴박성으로부터 이어지는 강생의 에너지적 스토리가 되기 때문이다.

나그네 아브라함

2. 중동지역에 사막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남부.
그 곳에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 이집트에서 거주지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아 항상 절박하게 이동해야 하는 나그네들이었다.
영(靈)과 함께 절박함을 몸소 체험하며 경계와 장소를 넘나드는 사람들, 곧 영어로 히브리(Hebrew)인 들이다.
기원전 12세기경의 한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유일신 정신이란, 한 神만을 섬기자는 ‘일신우상주의’가 아닌,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대변하는 神(神)이 유일한 하느님이라는 주장이 그 시대부터 있다고 하지 않는가...

이주 노동자의 아들, 모세

3. 이집트에 거주하던 이주 노동자의 자손으로 태어난 십계명을 받은 모세도 양치기 히브리(Hebrew)인이다. 어느 날 모세는, 40년간 다니던 미디안 땅의 똑같은 길에서 성스러움을 만난다. 연소되지 않는 불붙은 가시덤불을 보고 머리를 땅에 대고 거룩을 체험하는 모세에게 하느님은 말씀하신다.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그 장소는 거룩한 땅이다’

유목민들의 재산목록 1호는 신발이다. 우리는 중동사람들이 항의의 표시로 신발을 던지는 소식을 뉴스로부터 가끔 듣는다. 자신의 모든 것인 신발을 내버릴 정도로 미국 대통령을 혐오한다는 의미이다.

신 벗는 행위에 대한 생각의 전환

4. 거룩한 공간과 세속의 공간 표식은 바로 신을 벗는 행위이다.
우리도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끼는 목록 1호에서 벗어나야만 깨달음을 주신다는 뜻이다. 그것은 자아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내가 서 있는 이 장소가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생각의 전환이리라. 그 시대 모세에게 준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네가 서 있는 그 장소, 네가 지난 40년 동안 지겹도록 다녔던 먼지나는 더러운 장소가 바로 거룩한 천국’이라는 생각의 전환이다.
하느님과 만나는 곳은 거룩한 곳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희로애락을 경험하는 현장이라고, 모세를 통해 이미 ‘세상읽기’를 가르치신 것이라고 목상되어진다. 유대교의 신(神)이 계신 공간이라는 단어가 ‘마콴(Maqom)’이라고 하는데,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곳’이란 뜻이라 한다. 일상이 곧 긴박한 거룩이다.

思考의 전환이라는 절박한 수술

5. 중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찾고 의료진에게 자기 생명을 걸고 그만큼 절박하다. 그렇다면, 강생의 수술과 그 수술준비는 누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을 만나면 폭발할 정도로 위험한 금속인 나트륨과 독성물질인 염소가 있다. 따로 있으면 위험한 각각의 이 두 물질을 섞으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이 된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위험천만인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의 극히 위험한 자가 만나야만 비로소 공동체가 빛이 나는 타당한 이유이다. 인도의 산티니케탄이라는 대학도시에는 ‘노모스카’(내 영혼이 당신의 영혼을 사랑한다)와 ‘자이구루’(너를 이렇게 보기 좋게 길러주신 너의 선생님을 위하여!)라는 인사말을 즐긴다고 한다. 공동체의 긴박한 곳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를 우리 공동체의 인원으로 섭리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되는 강생을 진정으로 공감해 본다.



소곳이 오랑캐꽃 피는 나자렛

한 존재를 이야기 하려면 모든 존재를 말해야 한다.
- 토마스 베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 데스몬드 투투-

내 작은 십자가의 길

수련자 백 진희안드레아 수녀

주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신께서 걸으셨던 길, 외로움의 길, 고통의 길 그러나 사랑의 길, 구원의 그 길을 저희도 따라 걸으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그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제1차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

가끔씩 억울한 일, 내가 아니었으면 하는 일,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을 마주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사형선고대 앞에서 계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는 질문 대신, 이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그러십니까?' 라고 묻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하소서.

제2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

힘들면 하느님을 원망하고, 잘되면 나의 공로로 돌렸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이제야 예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음을 깨닫고 부끄러워집니다. 아니, 오히려 당신의 지혜와 은총, 사랑을 청하기만 했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잊은 채 지냈습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주님,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 안

겠습니다.
제 몸과 마음을 온전히 당신께 바치게 하소서.

제3차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

저에게 수도생활의 첫 번째 넘어짐은 공동생활에서 부딪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그들은 내가 보내준 선물이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것은 저에게 겸손해지라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의 자존심, 저의 약함, 저의 강함 모두 내려 놓습니다. 저의 시련과 아픔이 단련되어 더욱 성숙해지고 겸손 되게 하소서.

제4차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내 아들, 네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대신 십자가를 졌으면...'
고통스러운 예수님보다 더 가슴이 찢어질 듯 고통스러워하시는 성모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신뢰심을 담은 깊은 침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야 압니다. 너무 커서 들리지 않는 소리가 침묵임을... 어머니..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집

요양원에서 청원실습을 하며 만난 할머니 중 눈을 뜰 수도, 말을 할 수도, 온몸을 스스로 가눌 수조차 없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 대 소변 등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타인에게 의지하셨지만, 저의 작은 손길이 그분께 큰 기쁨을 드리려는 것을 보며 시몬에게 고마워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의 손과 발이 당신의 작은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제6처 베로니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

실습 초반, 할머니들의 대소변과 그 냄새가 힘들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들의 대소변과 구토보다, 더 더럽고 추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런 할머니들을 피하려고 했었던 제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피하고 싶고, 보고 싶지 않고,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마음...

주님, 이제는 외적인 더러움이 아닌 내적인 더러움을 깨끗이 닦아 내겠습니다.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모두가 멀게만 느껴지고, 나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울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네 주님, 당신만이 저의 전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

힘들게 한 발자국씩 걷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이데... 나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며 힘들게 걸어가는 모습...

그분의 고통을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어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여 울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다. 네가 살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위로자신 주님, 당신만이 저희의 모든 것을 알고 구원 해주십니다.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 지심

한번 인내하고, 두 번 기다려주고, 세 번째... 저에게 세 번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마지막이다.’라며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때마다 저를 다시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어 당신의 사랑으로 살려주십니다.

저의 때와 하느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저에게는 끝이라고 생각 했을 때가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되는 빛줄기...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오로지 하느님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 할 때, 그때가 새 출발임을...

주님, 저는 당신의 사랑과 자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

하느님께서 벌거벗은 저의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다.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않고 당신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제가 무얼 할 수 있고 또 무얼 할 수 없는지를 인정하고 당신 앞에 남김없이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완전한 무기력감.. 그곳에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심

탕탕탕.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 했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며 원망했을 때,

당신의 뜻은 무시하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했을 때, 죄를 지을 때마다 못이 더 깊게 박혀 들어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손과 발보다 더 아픈 곳은 바로, 저희의 죄로 고통 받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주님, 저도 제 십자가와 하나 될 수 있게 하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

죽기까지 순명하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많은 이들의 모습이 눈에 비칩니다. 당신을 비웃는 이들, 당신을 무시하며 모욕 하는 이들.. 이 순간,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하는 모습들까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다 보 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겸손, 가난, 순명으로 모든 이들을 용서 하십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사랑을 믿으며 갑니다.

당신은 완전하게, 그리고 전부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안으셨습니다.

추운 겨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처음 예수님을 안았던 감격은 잠시, 어느새 시간이 흘러 당신의 아들이시면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그분께로 돌려 드렸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주시는 은총은 겸손 되어 당신의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고통은 인내롭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

주님의 무덤 앞에 고요히 머무릅니다. 어디에선가 들리는 주님의 목소리...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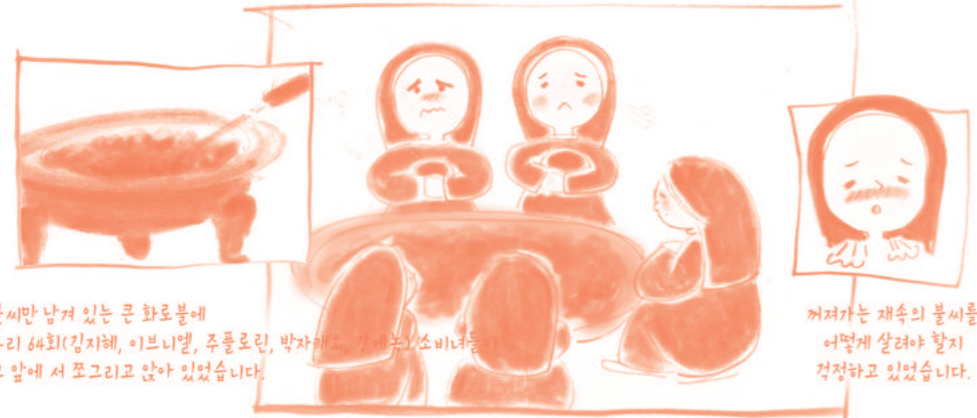
너니까, 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란다.”

주님,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의 제 자신을 받아주고, 이해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또한 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온 생애가 사랑이었듯이, 저희 생의 전부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재속의 불씨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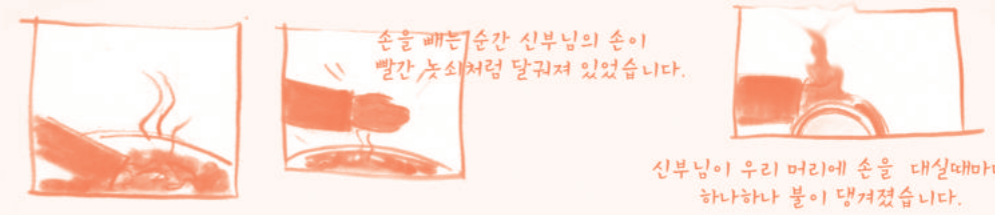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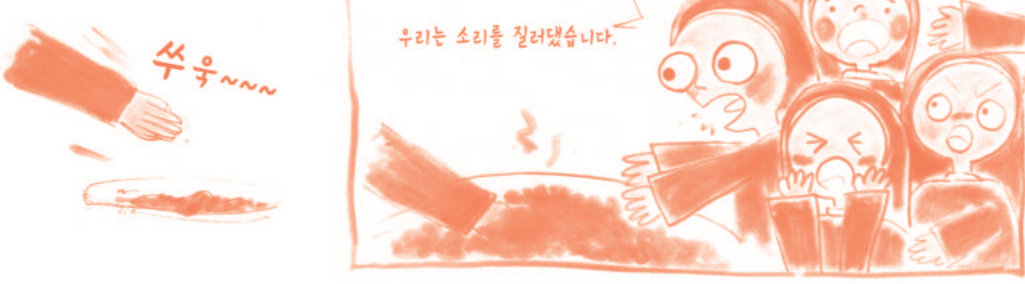
박 자캐오 소비녀의 꿈
-종신서약 준비피정 때-



그런데 옆에서 '소비녀' 지를 읽고 있던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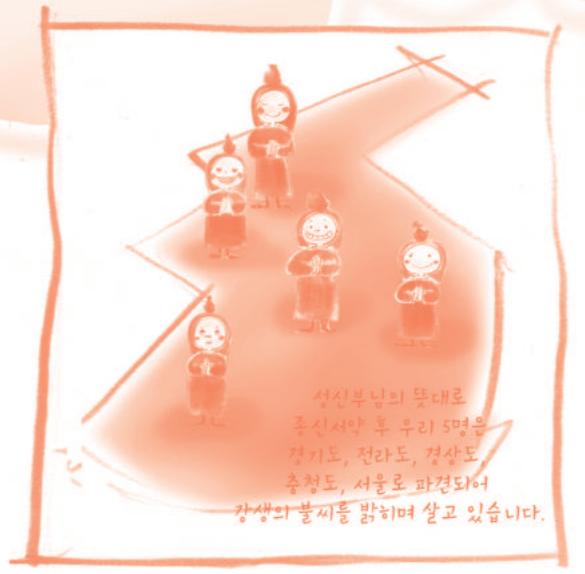


신부님께서 뜨거운 화로불에 당신 팔을 집어 넣으셨고



그러면서 우리는 파견을 받았습니다.....

이 꿈을 묵상해보니 64회 소비녀들 5명이 전국으로 파견됨을 의미하였습니다.



A PAINTING OF SR. JOHN MARY'S

텃밭을 가꾸시는 하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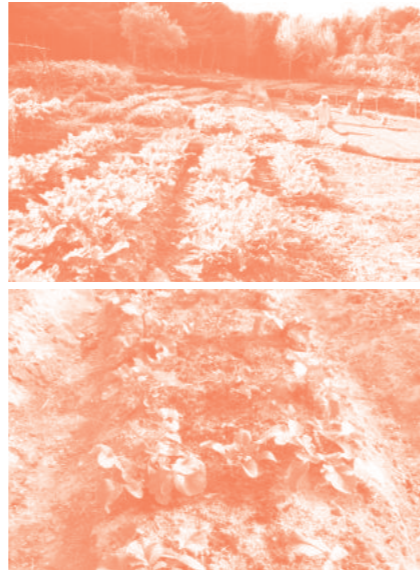
수련자 황 베드로 수녀

수녀원 울 밖의 밭 하나를 얻어서 수련원 가족이 채소를 가꾸기 시작했다. 농부 수녀님으로부터 모종을 심으려면 5월 5일 어린이날을 반드시 지나고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5월 5일이 지난 후 모종을 심었다. 수련원 가족이 심은 모종은 오이, 적무, 토마토, 땅콩, 감자, 도라지, 고추 등이다, 수세미와 꽃 양귀비도 밭가에 심었다.

난 요즘 토마스 머튼의 영적 일기를 읽으면서 성가소비녀회의 토마스 머튼을 꿈꾸었다. 생태 일기를 써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도 토마스 머튼처럼 그런 일기를 쓰고 싶다는 마음의 소리가 먼저 대답했다.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섬세하게 자신을 알아가고, 삶을 읽어가고, 하느님의 사랑을 찬미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나도 생명을 키우면서 하느님 사랑을 자연스럽게 찬미하는 마음을 이 글에 담아보았다.

2013. 5. 26 - 첫 수확

드디어 첫 수확!!!! 모종을 심은 뒤로 누가 보든 안보든 저 혼자 씩씩하게 잘 자라던 적무(빨간 무)가 우리 밭의 만물 된 것이다. 튼실하게 자란 적무를 본 농부 수녀님께서 한 번 뽑아서 먹으라고 하셨다. 내가 알아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는 날이 왔다. 씨를 받기 위해서 몇 그루 남기고 자매들과 함께 가서 뽑았다. 자라면서 흙 사이로 엮보았던 무의 붉은 속 빛을 완전한 모습으로 보니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다웠다. 먼저 뽑은 무를 깎아서 먹었다. 다른 무와 비슷한 맛이었지만, 왠지 더 특별한 맛이었다고 생각한다. 첫 수확이기에 깨끗이 씻어서 먼저 노비샤의 예수님 앞에서 나를 제물을 올렸다. 지금 생각하면 '춥지도 길 걸'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농부가 수확을 할 때 누리는 기쁨을 나도 조금은 맛보는 것 같았다. 점심식사 때 수녀님들께도 드렸다. 다양한 평가가 나왔다. '맛이 총각무 같다', '너무 맵다', '맛있다', '맛에서



생명이 느껴졌다' 등의 다양한 평가. 아쉬운 것은 바람이 든 무가 관구장 수녀님 식탁에 갔다는 것이다. 아, 왜 하필,.. 우리의 가장 못난 부분도 품어주실 분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랬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남는 것이다.

오늘 첫 수확된 이 적무들은 나의 욕심의 단면이 드러난 수확물이다. 무를 심었던 고랑은 비교적 넓은 편이어서 두 줄로 심는 것이 적당했다. 그러나 나는 심을 때 웬지 땅이 아까워서, 세 줄로 심었고, 그 결과 가운데에서 자란 무들은 크기도 작고 다른 무들에 비해서 약간은 더 맵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내가 부린 욕심 때문에 무들이 자유롭게 자라지 못했다. 이런 작은 것이 생태 질서 위배의 시작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인간은 스스로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저 욕심대로 많이 생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작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어떤 마음으로 자라는 것은 안중에 없이 그렇게 재배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그저 심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나와 함께 하는 작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겠다.

2013. 5. 27 - 대 세우기

새벽부터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다. 오늘은 포천 묘지에 별초를 갈 예정이었으나, 비가 계속 와서 취소되었다. 그래서 이날이 우리 밭의 변신 날이 되었다. 고추, 토마토, 피망, 오이 등에 대 세우기를 했다. 비오는 날 대를 세우는 것은 땅에 대를 박기가 쉬워서라고 김 카롤리나 수녀님이 가르쳐 주셨다. 더욱이 좋은 이유는 오늘은 비가 오지만, 오전에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았을 뿐더러,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일하기도 좋은 날이라고 하셨다.





25일 구입한 풀대와 끈을 등을 이용해서 대를 세웠다. 대를 세우는 방법은 채소의 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서 한다. 사진으로 보면 알기 쉬울 것이다. 고추 같은 경우는 각각에 대를 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래도 대를 적게 세우고 많은 고추를 지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토마토는 자라는 길이가 길어서 그래도 하나에 하나씩 대를 세웠다. 오이도 고추와 비슷한 방법으로 세웠지만, 더 길게 자라기 때문에 좀 더 긴 대를 세웠다.

2013. 5. 30 - 텃밭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다 -

3일 동안 비가 왔다. 그 사이에 밭에 풀대를 세웠고, 가끔 밭에 나가서 잘 자라는지 확인했다. 비가 와서 할 일이 많이 없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나에게 이 3일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3일 동안 매일 밭에 가서 작물들을 보았지만, 매일매일 작물이 자라고 있다는 느낌은 없었다. 단지 비가 오는 것이 너무 고마웠고, 감사하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이 비가 이 작물들이 자라게 하는 데는 저녁에 물주는 것보다 몇 배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비가 그친 오늘 나의 마음에는 또 한 생각이 올라온다. 비가 그친 후의 밭을 나가 본 사람만이 그 비에



작물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알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비가 올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해가 나기 시작하니깐, 너무나 훌쩍 커 버린 것이다. 고구마도, 도라지도, 감자도, 토마토도, 고추도, 열무도, 배추도, 피망도, 땅콩도, 파들도 모두가 비가 오기 전과는 다른 모습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3일 동안 작물들은 그 비를 맞으며, 부활을 준비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 저승에 가셨다. 3일 동안,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저승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저승평정. 그렇다면 저승 평정의 결과는 무엇인가! (교리지식이 부족한 나의 다소 이단적인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저승평정, 악마들에 대한 기선 제압 및 악질 악마 퇴치의 엄청난 일을 단 3일 동안 하신 것이다. 비록 그 시간 동안 지상에서는 슬픔에 젖어있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 3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기쁘게 맞을 수 있다. 그 3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말이다.



2013. 5. 31 - 비상 -

임마누엘 수녀님이 애지중지 키우는 감자 1포기를 무엇인가가 갇아 먹어서 거의 부러졌다. 범인은 '곰벙이'. 곰벙이는 구르는 재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굴러서 감자를 다 갇아 놓았다. 한 수녀님께서 아침에 나와서 그렇게 갇아 먹어진 감자의 땅을 파 보면 곰벙이를 잡을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며칠째 나와 보지만, 더 이상 갇아 먹는 것도 없는 것 같다. 곰벙이는 정말 빨리 도망친 것 같다. 그런데 곰벙이가 나무를 갇아 먹은 것만큼이나 더 신기한 일이 있었다. 거의 잘려진 감자를 임마누엘 수녀님이 잘라버렸는데, 그 감자의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것이다. 처음에 감자에 잎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다. 왜 일까? 곰벙이에게 갇아 먹히는 고통이 오히려 감자를 더 성장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어려움들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손길 이겠지. 나는 우리 작물들은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증거 하는 작물들이라고 생각한다.

2013. 6. 1 - 오이의 비애 -

갑자기 카롤리나 수녀님께서 밭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다. 함께 밭을 가서 수녀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오이꽃들이 많이 피기는 하는데, 모두다 수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꽃에서는 오이가 달리지 않고, 암꽃에만 달린다고 하셨다. 그 순간 어디 가서 암꽃나무를 데려와야 하나 하는 생각만 들었다. 수녀님은 우선은 지켜보자고 했지만, 나에게서는 시간이 가고 있

었고, 암꽃나무를 데려와도 키워야 하는데, 언제 키워서 오이가 달리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한 가득 되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오이에게도 짝이 있었음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나에게서는 오이가 12그루가 있었는데, 어떻게 한 그루도 암꽃이 피는 그루가 없을까하면서 모종가게 아저씨에 대한 원망이 슬슬 올라왔고, 그렇게 하루가 갔다.

그러나 하느님은 나에게도 자비하시다. 아침에 밭에 갔는데, 고추 옆에 자라고 있는 오이에 작은 오이가 달렸다. 오이는 암꽃이 피는 그 때부터 꽃과 함께 자라기 위해서 정말 모양을 다 갖추고(오이 표면에 있는 돌기까지 - 꼭 엄마의 배속에 있는 아기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지내는 것처럼) 꽃 뒤에 붙어서 자라는데, 너무나 신기했다. (후에 농사 전문가 수녀님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오이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찬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마리루까 수녀님의 도움으로 오이 손지르기를 했기 때문에 결실에 대한 희망은 보다 확실해졌다.)



2013 . 6. 3 -닭에게서 바오로를 묵상하다-

밭 옆에는 닭집이 있다. 여기에는 수탉, 암탉 합쳐서 20마리 정도가 함께 살고 있다. 생긴 것만큼이나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옆에서 보니까 알겠다. 이 닭들이 달리기를 할 때가 있다. 무엇인가 특별한 먹이(맛있는 야채, 통통한 애벌레류)를 물었을 때. 다른 닭들도 금방 알고 와서 부리에 물고 있는 것도 쪼아서 빼앗아 먹기 때문에, 특별한 먹이를 물면 바로 달리기 시작한다.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공하면 혼자 독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빼앗기거나, 조금이라도 먹거나...

이런 닭들이 성공해서 혼자 먹이를 먹는 것을 보면 사도 바오로의 달리기가 생각난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2티모 4. 8,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 3.13-14, 웬지 그 닭들도 사도 바오로처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나 자신은 얼마나 열심히 달리고 있나하는 것도 성찰하게 된다. 물론 나는 먹이를 독식하기 위한 달리기는 결코 아니다. 뛰는 닭들을 보며 웃기도 많이 웃었지만, 이제는 그 웃음 너머 깨달음에 도달해야 한다는 결심을 마음으로 뛰면서 한다.



2013. 6. 4 - 생명의 태동 -

우리 밭에 새로운 생명들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오이를 시작으로, 고추도 토마토도 꽃과 열매를 준비하는 몸짓으로 가득하다. 땅콩에도 아기 엉덩이 같이 생긴 노란 꽃이 피었다. 하느님께서 봄에 새싹이 돋게 하셔서 생명의 시작을 알려주시고, 2013년 여름(꽃이 피는 시기, 열매가 달리는 시기는 각양각색이지만) 나에게 생명이 이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순간을 허락하여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다. 사실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물 한 번 준 것 보다 하느님께서 비 한 번 주신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하-



느님께서 작물들이 자라게 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햇빛을 주신다는 것이다. 아마 이것은 그 누구도 하느님과 똑같이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명을 키워주시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 나는 밭일을 하면서 하느님을 더욱 가까이서 느끼는 것 같아서 좋다. 그리고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다.

2013. 6. 6 - 아침 텃밭의 하느님 -

첫 목요일이 좋다. 한 달에 한 번 주어지는 자유(자율?)의 아침이기에 이른 새벽에 밭에 나올 수 있는 날이다. 다른 날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밭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밭의 작물들이 어제와 또 다르게 많이 자랐다. 고추에도 이제는 작은 고추가 달리기 시작하고, 토마토도 꽃 진 자리마다 동그마니 열매가 앉아있다. 그 동안 걱정 되었던 오이들도 많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열무와 배추들은 정말 쑥쑥 자라고 있음을 느낀다. 땅콩도 아침에는 꽃을 활짝 피우는데, 정말 예쁘다. 꽃잎이 꼭 토실토실한 아기 엉덩이 같다.

밤새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은 모두 그분의 뜻이겠지. 그리고 모든 자연 피조물은 그 뜻에 오로지 순명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겠지. 모든 인간의 아침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다면 얼마



나 좋을까!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 능력을 배제하고, 직업으로만 치면, 하느님의 일이 가장 어렵고 힘들겠지만, 가장 기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오늘 아침 참 많이 와 닿는다. 그래서 나는 아주 즐거우시고 부지런하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아침 밭에 가는 것이 참 좋다!!!

마리아는 길을 떠나

수련자 권 마리플로린 수녀

마리아는 길을 떠난다(루카 1, 39).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그 믿기 어려운 밤이 지나 찾아온 아주 새로운 아침. 더 이상 평범한 가정의 작은 소녀로,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 어린 딸로 머물 수 없다.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또 그 체험을 믿고 **세상을 향해 노래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마리아.**

마리아의 길 떠남에는 우리 각자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듯하다. 마리아의 길은 간히고 단절되고

고립된 나에게로부터 나와, 해방되고 소통하고 함께 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모든 이들의 여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이야기이며,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아프고 힘든 여정이기도 하다.

나는 내안의 감옥에, 내가 스스로 만든 내면의 감옥에 갇혀있다. 내가 느끼는 나의 부족함, 한계, 아픔, 두려움, 열등감으로 나는 자꾸만 내안에 숨어든다. 회피하고 도망간다. 그런 자신에게 늘 지쳐 나가떨어진 다. 나의 가치와 존재이유,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스스로 외면한다.

이러한 나의 모습은 마치 복음 속의 하혈하는 여인 같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자신은 계속 가난해지고 텅 비어가며 더 고독해져가는, 그래서 점점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던 여인,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예수님 앞에서 도나서지 못하여 뒤에 숨어서, 옷자락만 살며시 만지던 여인...

그런 여인을, 아니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 앞으로 불러내신다. 한 번, 두 번... 그동안 온갖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고, 자신을 숨기고 달아놓았던 나를 밖으로 끌어내신다. '예수님만은 나를 받아주시리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께로, 그리고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발을 내딛는 나의 아주 작은 믿음과 용기.**

공부방 아이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한 명 한 명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 그 어린 아이들 가슴에 화가 숨어 있다. 그 예쁜 영

혼에 슬픔이 비친다.

그들의 말투에서, 행동에서, 눈빛에서 그리고 온 몸을 바들바들 떨며 꼭 쥐 작은 두 주먹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무엇이 그들의 고사리 같은 손을 그토록 꼭 움켜쥐게 했을까? 세상으로부터 자신과 동생과 가족을 지키려는 안간힘을 쓰는 그 마음이 서글퍼진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움켜진 그 손을 펴고 그 나이답게 꿈을 향해 활짝 펼쳐도 될 텐데...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또 다른 나를 만난다. 나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그 조그마한 몸으로 온갖 짐을 지고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다. 하지만 나의 마음, 나의 열정,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들과 갈등이 생기고 나의 부족함에 좌절하고 우울해 지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만큼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만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치유하시고 파견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가장 아픈 곳,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내게 하시며, 그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을 끌어내신다. 그 감추고 싶은 자리가 그대로 예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지면서 아이러니 하게도 그 여인은 그것에서부터 치유되고, 그토록 피해왔던 마음사람들에게로 달려가 자신의 과거를 개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름다움과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게 돕는 것이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가난함을 갖고 접근하도록 가르치신다.

강함도, 능력과시도, 그 어떤 잘남도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 당신만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가난함 그대로 다가가는 것이다. **나의 약함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힘.**

마리아는 길을 떠난다. 기쁨과 두려움, 설렘과 의혹..., 온갖 마음을 지닌 채,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간다. 늙은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이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을 것 같은 엘리사벳,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하심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웬지 두렵고 불안한 그녀...

비슷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길을 떠나는 마리아...

불완전한 두 존재가 만나 서로 보듬으며, 힘이 되어 주고, 도와준다. 그 만남에서 '함께'라는 삶의 의미를 배운다. 나와 함께 수도생활을 시작하여 좌충우돌 비슷한 아픔과 과정들을 겪어가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세상을 향해, **세상의 가난한 이들을 향해 함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우리 동기 수녀님.**

이 모든 것은 나를 마리아처럼 떠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

나는 선교를 꿈꾼다. 수도원에 와서 생긴 새로운 희망이며 꿈이다. 아직도 내 안에 나를 가두는 두려움의 벽이 여전히 높고, 타인보다 나를 생각하는 이기심이 더 크고, 이웃에 대한 회생과 사랑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꿈꾼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마음이란 확신이 든다. 세상을 향해, 세상의 가난하고 아픈 이들,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과 손과 발이 가닿기를 바라는 그곳을 향해 **마리아처럼 힘차게 당당하게 자유롭게 발을 내딛는 그날을 꿈꾼다.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오늘 여길 떠나면
다신 돌아올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포권함도
그 안전함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젠,
저 파란 하늘을
날 때입니다.





도담 도담 사랑하기

수련자 홍 그라시아 수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공부방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 광적 성당의 도담도담 공부방이다. 수련원이 주최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 수도회 고유 정신의 실현과 특히 제15차 총회가 정한 사람, 환경, 자연을 살리는 생명 살이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렇게 거창한 목적을 두고 있긴 하지만 아이들과 만나면 어떻게 이 장난꾸러기 녀석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공부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다.

처음 공부방 봉사를 하게 되었을 때,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을 조금 후회도 했지만, 다행(!)인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룰 줄 아는 피아노와 기타 수업을 맡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이 수업 또한 상의할 누군가 없이 혼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내심 부담스러웠다.

첫 시간, 어색함과 낯선 분위기, 경계를 늦추지 않는 아이들, 수업에 관심조차 없어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

은 당황스러웠다. 입회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처음 겪는 것도 아닌데도 새로운 만남은 나에게 늘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느끼고 다짐하고 수업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아이들을 사랑하자는 것이었다.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겠다는 것과 어떤 대단한 연주가 아니더라도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아이들의 경계심을, 그리고 아이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고픈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러기에 음악 수업은 나에게 아주 적합한 수업이었다. 악기는 아이들과의 경계를 허물 수 없는 좋은 매개체가 되었고, 주입식의 강의를 아니라 다소 자율적인 음악 수업은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수업 방식을 이려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대하며 무조건 꼬~옥 안아주는 것. 악기를 잘 다루고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수업에 잘 따라오는 네가 정말 장하다, 정말 예쁘다, 정말 고맙다는 표현으로 늘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피해 도망가도 다가가서 안아주는 것이었다. 처음엔 물론 나도 많이 어색했다. 아이들이 이상하게 바라볼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알게 된 매우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은 어색해 해도 또 도망을 가도 내가 안아주면 나의 그 마음을 잘 받아주고 잘 안긴다는 것이었다. 어색해 하는 것도 도망을 가는 행동도 사실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었다. 엄마의 사랑이 더욱 필요한 몇몇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 아이들이 그러했다. 어쩌면 그 느낌이 나의 마음 또한 움직여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이후로 수업의 진도 보다는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말 못할 이야기들을 꺼내주고 싶은 욕심이 생겨났다. 그러나 조금해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아이들이 말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리고 말을 꺼냈을 때 경



청해주면서 아이들과 공유하기를 기다렸다. 전부는 아니지만 한 아이의 눈물 섞인 부정적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 표현, 수줍지만 자신감을 내비친 아이, 또 아직 내 눈엔 여리디 여린 아이이나 이미 너무나 철이 들어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 아이, 가끔 어른스럽게 나와 맞장을 떠주는 녀석도 있다. 지난 사순절 동안 나는 좋아하는 초콜릿을 먹지 않기로 하고 자기는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 시간을 줄이고 그 희생을 봉헌하기로 한 기특한 녀석이다. 이렇게 아이들은 나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온 아이들 속 깊이 감추어진 아픔과 외로움은 그 대로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었다.

때로는 아이들의 집중과 공부를 위해 무서운 선생님의 역할도 불가피하다. 말을 잘 듣지 않거나 고집부릴 때 부릅뜨는 나의 큰 눈과 엄격해야 할 때는 대충 넘어가지 않는 말투, 그러다보니 아이들 사이에 내가 가장 무서운 수녀님이라는 평가가 들려온다. 그렇지만 후회는 없다. 그것은 나의 일부분일 뿐이고 이미 나는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나 스스로가 느꼈고 아이들을 통해 체험했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음악이 아닌 초등부 영어 수업을 나가고 있다. 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아이들을 한 명씩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음악수업을 할 때보다 시간 내기가 쉽지는 않다. 1:1 수업이 아닌 아이들 전체와 수업을 해야 하기에 한 명씩 만나기가 곤란할 때도 있지만 수업이, 그리고 성적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내가 아니기에 무리해서 시간을 내기도 한다. 그저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과 '나는 다른 아이들과 환경이 틀려서 못하는 것이 아닌 다른 특별한 것을 갖고 있기에 다를 뿐이다!' 라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내가 만들어낸 Mission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쓸데없는(?) 자신감!!" 키워나가기!!" 우리 각자가 모두 특별한 사람이기에 이 말이 나는 너무나 마음에 든다*^^*. 쓸데없는 자신감이라는 표현은 내 나름대로의 역설적 표현이다.

정말 자신감이 없더라도 나를 창조해주시고 나를 믿어 주시는 하느님께 의탁하며 "난 할 수 있어, 난 괜찮아, 난 특별해!"라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쓸데없는 자신감일지라도 하느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쓸모 있게 쓰시리라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을 정말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해주고 싶다. 나도 이 말로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밝아지고, 예전보다 많이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마음으로부터 느끼고 체험했기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없이 고마울 뿐이다. 나의 Mission 상대도 되어주고 또한 내가 부족하나마 '엄마'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에.. 그리고 나의 삶의 이유인 예수님, 하느님을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기에... 그리고 아직은 작은 나의 사랑이지만 모두 내어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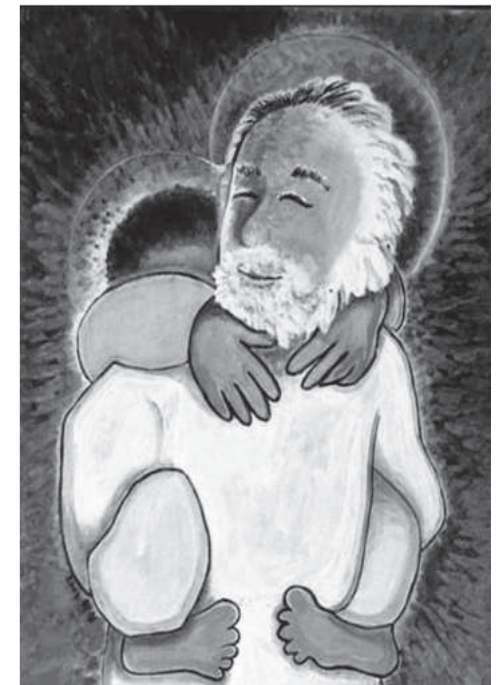


요셉, 새로운 시대의 예언적 남성상

수련자 백 소피아 수녀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 요셉이 가진 덕성은 의인, 노동, 침묵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그의 삶 속에서 가장 크게 발견해야 하고, 또 가장 부각되어야 할 면모는 그의 '자비심'이다. 이 자비심의 면모는 그의 전 생애에 걸쳐 확실히 드러난다.

우선 마리아와의 약혼자로서, 그가 베푼 놀라운 자비심을 볼 수 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물건('약혼'이라는 단어에도 물건을 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혹은 소유물로 여겨졌으며, 특히 여성의 혼전 임신이나 간음에 대한 처벌은 아주 잔인했다. 이것은 현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러하지만, 이러한 법은 당시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지금도 당연시 되는 지역이 남아있다. 그러나 요셉은 당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마리아에게 자비를 베푼다. 혹자는 마리아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남몰래 파혼하고자 생각했던 요셉을 '소심한 성인'으로 취급하며 비하하고 있지만 이 행동은 위대한 결심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서는 그것이 주님의 천사가 일러준 것이며, 그 명에 따른 요셉의 행동만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지만, 그 기간에 수많은 갈등과 싸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꿈속에서 일어났던 천사의 전갈이 과연 무엇인지 판단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국 그는 당시의 관습과 한계(어쩌면 자신 마음속의 생각이었을지도 모를)를 부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었던 약혼녀의 혼전 임신이라는 사건 속에서, 인간의 논리와 법을 뛰어넘어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뜻을 받아들이고 약혼녀도 맞아들인다. 이 행동은 요셉 자신의 뜻을 버릴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 그것은 요



Joseph

Joseph

셉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인간의 결심과 협력, 적극적인 행동이 하느님의 구원과 뜻을 어떻게 이루는지 잘 드러내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두 사람의 운명, 특히 한 인간의 자비로움에 의해 말씀은 세상에 강생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예수와 여성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요셉의 자비로운 면모를 추측할 수 있다. 이 지상에 완전한 인간으로 강생하신 그리스도는 여느 인간들처럼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그의 모든 덕성을 받으시지 않았을까? 여성을 대하는 예수의 면모는 아버지인 요셉이 여성에 대해 가졌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간음한 여인을 처단하지 않고 용서하는 예수의 모습은 약혼녀의 혼전임신을 알고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 요셉의 면모와 겹쳐진다. 당시 시대의 관습과 달리 여성과 어린이 등 소외계층과 약한 이들을 끌어안는 예수의 모습은 분명히 그 아버지인 요셉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요셉이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남자, 남편,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특히 이 천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종교와 민족을 초월해 거의 공통적으로 드러났던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권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느님이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자, 그리스도교에서 본받아야 할 가정으로 내세운 성가정의 구성원인 요셉의 모습은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남자·남편으로서의 요셉의 모습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모습은 상대방의 그 모든 것을 받아 안는 모습이다.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시대(지금도 꽤 그러하다)와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에 큰 결점이 될 만한 사실을 가진 약혼자였다.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를 아기를 임신하고 약혼자 앞에 나타난 약혼녀-신앙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를 받아들인 요셉에게서 상대방의 결점이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남성, 남편에게 요구되는 덕성이 아닐까?

아버지로서의 요셉은 예수 -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말씀 - 을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 양육한다. 이름과 할례, 성전 봉헌을 통해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버

지로서 아들에게 해야 할 교육들을 완수한다. 예수는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의 권리에 의하여, 그리고 요셉의 부성애와 보살핌에 의하여 요셉의 가정에 속하였다. 전통적으로 요셉을 '기른 아버지'(foster father of Jesus)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또 사실, 예수는 성격, 화법, 예의, 작업, 기술 등에 있어서 틀림없이 요셉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어리고 약한 생명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모습 속에서 남성?남편?아버지들이 가져야 할 완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요셉이 예수에게 보여준 부성적인 사랑은 하느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요셉을 통해 예수에게 부여된 하느님 '아버지'로서의 사랑이었을 것이다. 인간이 되신 예수는 지상에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었던 두 사람을 통해 완전한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사명 속에서 실천하였다.

이 시대 가장 크게 부각된 문제인 가정 해체에 대한 해결책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사회가 가정이 해체되어가는 중요한 요인을 아직 파악하지는 못하였지만, 여성의 변화보다 남성의 변화가 느리다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될 것이다. 가정에서 자신과 하나가 될 존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모습, 또 가정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 하며, 그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모습은 여전히 현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1964년 이스라엘 나자렛 사목방문 때 "우리는 나자렛에서 가정생활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지니는 사랑의 친교, 간소하고도 소박한 아름다움, 그리고 성스럽고도 침해할 수 없는 특성들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그 구성원이었던 요셉-유대 사회에서 가장일 수밖에 없었던-이 지녔던 덕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요셉의 이러한 면모는 남성들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다. 당시 사회에서 우위권에 있었던, 그리고 약혼자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남성으로서 그러한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이자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던 여성인 마리아를 내몰지



않을 수 있었던 그의 마음을 이 세상의 남성들은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여지껏 많은 교황들이 마리아를 본보기로 삼아 그 덕성을 본받고 배울 것을 권유하는 것을 여성들에게 선포해 왔다. 이제,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남성들에게도 한번쯤은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보편적 인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절반인 '남성'이라는 존재들이 요셉의 덕성을 본받도록 권고할 근거는,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가의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에게 백마 탄 영웅이 필요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영웅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이 존재합니다.

- 반 존스 -



나의 영적 여정

예수마리아요셉회 김봉희 마리아 님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인연은 초등학교 시절로 기억됩니다. 어느날 저는 집 앞의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서 평생 주님 안에서 살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시련이 다가 오게 되었고 그 후 십년동안이나 주님의 곁을 떠나 살다보니 어느새 저는 오심을 훌쩍 넘겨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후 어느날 제 동생은 저를 성모님의 따스한 품으로 인도 해주었고 뒤늦게 마리아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늘 사는 것에 바빠 주일을 지키는 것도 힘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삶의 여유를 주시고 온전히 신앙생활에 방해 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도록 평화를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겹겹이 포장하였던 부질없는 것들을 내려놓으니 무엇이든지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체로 교리친구가 권하여 JMJ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 모여서 적은 수지만 정성스레 드리는 미사와 수녀님과 함께하는 말씀 나눔도 소중하게 마음에 담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달려와서인지 늘 신앙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직도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만 급급하여 걸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글을 쓸 정도의 회원이 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을 것 같아 열심히 성 신부님의 뜻을 찾아보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가소비녀를 설립하셨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교회에 순명하시기 위하여 충남, 논산, 홍성에서 20여년을 사목에 온 힘을 쓰시면서 헌신 하셨고 그

뜻을 받들어 성가소비녀회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비녀란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라니 전 그 뜻을 잘 모르고 단지 수녀님들만의 수도단체로만 여겼으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부족하지만 이제 저도 소비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소비녀들로 하여금 강생의 영성을 보다 변두리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며 가난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가난하지 못한 내안에 강생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힘으로 용기 있는 소비녀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설립자의 선교 정신이라 들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지나치게 주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세운 기준을 벗어나면 늘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JMJ에서 들어온 후 예수님의 열정적 영성을 발견하여 그 삶을 실현하여 더욱더 인간적이고 화해를 나눌 수 있는 깨우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비녀의 삶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우리 자신을 사랑 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주는 일과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 변두리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도록 무장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가소비녀회의 강생의 영성을 생활함으로써 영적 보화를 공유하고 증거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JMJ

예수마리아요셉회 정우진 코르비니아노 님



사람이 살아감에 내 삶의 영역에서 JMJ를 알고 입회하면서 “열심 중에 살으시오. 서로서로 사랑하시오. 도와주시오. 가난함과 가난한 자, 미소한 자들을 사랑하시오.”라는 설립자 신부님의 유언이 내 삶의 지표가 되었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서로를 아끼며 염려 해 주는 웅달샘 같은 신선한 향기가 솟아나며 하루의 만남에서 알게 모르게 활력을 얻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행복한 내가 되었음을 느끼게 했던 예수마리아요셉회이다.

서로 아끼며 아낌을 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또 다른 이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 또 다른 세상 허무한 시간을 느낄 때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 분발할 수 있는 향기가 숨어 흐르는 곳이기도 한 이곳에서 회원들과 더불어 함께 유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의미 있는 보람된 일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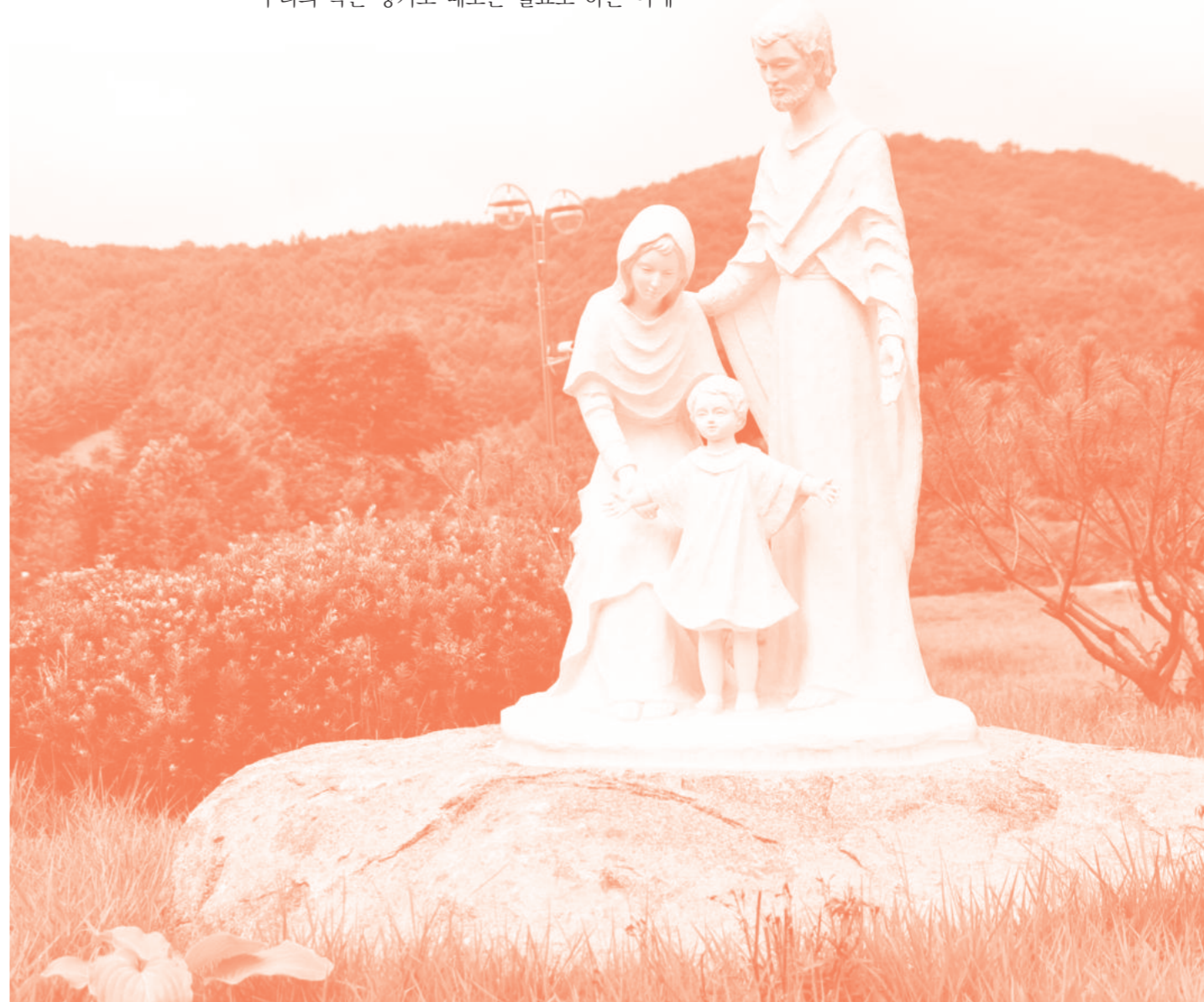
그윽한 삶의 향기, 소중한 인연은 언제나 흐르는 강물처럼 변함없는 모습, 따뜻한 마음, 맑고 순수한 인연으로 마음 나눌 수 있

었던 지난날의 시간들... 삶의 여정이 지치고 힘이 들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함께 하면 쉽게 할 수 있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각기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어려워진다.” 성가정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설립자 신부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좋은 생각, 푸른 마음으로 맑고 향기로운 삶의 향 내음 가득, 내 마음 깊이 남겨지길 기도해 본다.

게 맑은 샘물과 같은 향기가 되었다. 만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누군가를, 마냥 이유 없이 좋아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한 달에 한번이라는 짧은 만남의 시간들은 참 많은 아름다움을 내게 가져다주었기에 예수마리아요셉회 회원으로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이들이 언제나 기쁨의 삶을 누리길 바란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받는 것이 너무 많기에 조금씩 조금씩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고 공유했던 사랑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작은 향기도 때로는 필요로 하는 이에



나의 탈출기, 그리고 새로운 소명

김 광열요한 형제님

(탈북하신지 13년 되신 형제님으로 김 베아따 수녀님이 동반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조국이 2개입니다. 대한민국 남쪽도 대한민국 북쪽도 나의 조국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39살까지 키워주신 우리 엄마와 저를 영적으로 낳아주시고 북녘 고향을 떠나와 의지가 없던 외로울 때 "내가 너의 어머니다. 힘내라, 하느님이 너를 지켜 보고 계신다."며 저를 영적으로 돌봐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하여주신 성가소비녀회 김은선 수녀님입니다.

저는 한 북한천주교인의 소개로 중국연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김은선 베아따 수녀님을 만났고 천주교 교인 광열요한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의 나의 36세에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다시 태어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저는 베아따 수녀님께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은 "요한아, 한국에 가려면 아내와 자식을 데려오라, 하느님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수녀님 말씀대로 저는 북쪽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저는 3개월간 성경을 7번 읽고 천주교 책을 모두 읽었습니다. 하루 3시간도 못자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나니 완전히 신에 매혹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되돌아가는 두만강 가에서 저는 주님을 의심하였습니다.

1999년 6월 15일 때 아닌 봄장마로 두만강이 범람하여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강가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북한으로 무사히 넘겨주십시오! 저는 주



님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도 저 두만강을 갈라 주십시오."

1시간 기도를 하고 강이 갈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실망하고 절박한 심정에 주님을 원망하고 모욕하였습니다. "하느님 모세만 사람이고 저는 사람이 아닌가요? 저 주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사기꾼입니다. 주님은 못 보시는 곳 없고 구석진 곳도 다 보신 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왜 못 보셨나요? 잠을 자고 계셨나요?"

그런데 날이 밝아올 무렵, 친척이 강가에서 저를 보고 물의 깊이가 낮은 곳으로 저를 유도하여 강을 무사히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야 그 친척이 하느님이 보내신 손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향 청진으로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둘

아가서는 남한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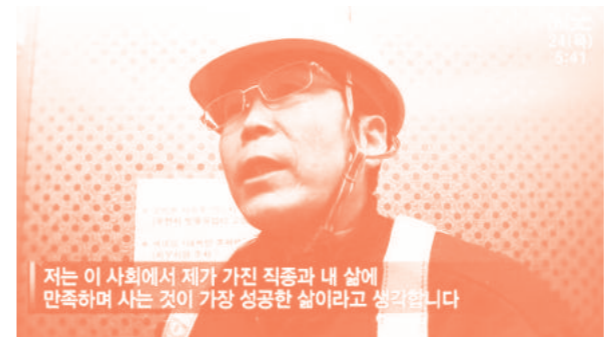
준비가 거의 끝나가던 어느 날 새벽, 보위부가 우리 집을 기습하여 저는 보위부에 180일간 예심을 당하였습니다. 북한의 감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글로 썼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이와 벼룩이 득실대는 감옥의 하루하루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철창으로 눈보라가 들어오고 간수들이 매일 감시하고 죄인 아닌 죄인들은 서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고 좀 따뜻한 곳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는 감옥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찬바람이 드는 철창 가에 자진하여 잠자리를 차지하였고 그들의 싸움에도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매일 주님의 기도를 하고 성경의 말씀을 마음 속으로 되뇌면서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철창에 매달려 운동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고 하여도 마음 속으로 "주님"을 부르며 "난 간다, 한국 간다."고 외치며 매일 기도와

운동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 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느님 체험을 한 것은 아직 신앙을 접하지 못했던 22살 때였습니다. 산속에 막을 치고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운구가 수평선 같이 있고 높은 산에 할아버지 한분이 저를 부르시면서 '오너라 오너라.' 하는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일어나 문을 열고 내다보는 순간 "쿵" 소리와 함께 내가 누웠던 자리에 큰 나무가 넘어져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천주교 신자였던 어머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자 "너는 영원히 하느님의 도움으로 오래 살 것이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는 날 꿈에 그 할아버지를 또 보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아,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80일 만에 지옥 같던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제가 석방될 때 나와 같이 들어온 20명은 죽어서 낙타봉 산기슭에 짐승처럼 묻혔습니다. 180일간, 이들은 감옥에서 날마다 따뜻한 곳을 차지하려고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또 기도도 하지 않았고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글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한으로 탈출하면서 고향을 버린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2000년 3월 1일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새벽 4시경 먼 길 떠나는 아들, 좀 더 자라고 부엌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 넣으시고 도시락을 준비하시던 어머니 모습이 생생합니다. 남한으로 가면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한숨을 연발하시던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가지마라, 가지마라" 우시며 할미꽃 같은 흰머리를 날리시던 어머님께 발목을 잡히던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니야, 난 자유를 위해, 인권을 위해 가야 해' 저는 모질게 마음을 다 잡아 먹었습니다.

"어머님, 꼭 성공하여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잡힌 발목을 빼고 매정하게 돌아서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훗날 제가 다

리를 빼고 떠나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아들 앞길에 누가 될까 혹시 보안부가 알게 될까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시며 떠나는 아들을 끝없이 바라보고보고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며 입만 벌리시고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천국에 계십니다.

어머니를 떠나 아버지를 뵈러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북한의 사정상 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있었고 아버지는 동생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남조선으로 간다고 말씀드리기가 무서워서 그냥 같까도 생각했는데 불효로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아 갈등 끝에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짐작을 하셨는지 1시간 정도 침묵을 하시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조선에 왜 가려고 하니?" "저는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평양 사리원 해주 함흥 대도시를 돌아보니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면 안전원이 다 강탈하고 농사를 지면 군대가 도둑질하고, 말 좀 잘못하면 보위부가 와서 협박을 하여 돈을 강탈하고 더러워서 못살겠습니다. 이 나라에 자유도 인권도 모든 것이 유린당하고 우리가 사람입니까? 하여 남조선에 가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철학, 역사, 지리를 전공하고 공부할 때 내가 왜 너에게 이런 것을 공부 하지 말라고 했는지 지금 이해가 가느냐? 이런 날을 내가 예상하고 너의 앞길을 막았다. 그때도 너는 나의 반대를 무시하고 너의 갈 길을 가고 훗날 '아버지 아버지가 반대하여도 저는 주체사상 강사가 되었고 전국 주체사상에 대하여 토론회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라고 자랑했지. 철학은 누구의 생각이든 밥은 먹지 못한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 진실이거나 정의가 아니라고. 또 지리는 너의 욕망과 야심을 충동하여 너를 괴롭힌다고 했었지.

이때도 너는 끝까지 역사 공부를 하였고 지리 공부를 하였다. 결과는 어떠냐? 너는 조국을 버리고 남조선으로 간다는 것이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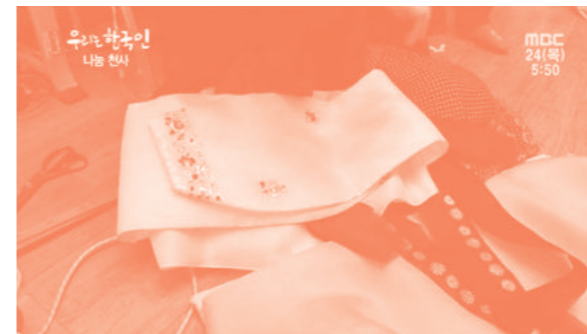
"아버지 솔직히 말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도 조국을 장군님 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조국이란 조상의 물려준 피와 뼈와 언어, 풍습, 조상의 넋, 조상의 흔적이 있는 곳이지 장군님의 품은 아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조국이 장군님 품이라고 하면 장군님 품이다.

너는 남조선에 가면 부자가 되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다. 가지마라."

아버지와 논쟁은 4일간 주야로 전쟁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논쟁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설득과 호소였고, 자유라는 포장을 한 아들의 현실 기피 논쟁이었습니다. 부자기간에 논쟁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하루 3끼 밥과 반주를 준비하여준 동생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때 여동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오빠, 저는 30년 동안 오빠를 존경하고 남조선에 가시는 것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누가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신고를 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고집을 누가 당하나요? 아버지께 남조선 안 간다고 말씀드리고 빨리 떠나세요! 오늘 두만강에 가보니 녹기 시작해요."



동생을 말을 듣고 아버지 방으로 다시 들어가 남조선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처럼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을 하시면서 "그레 장사를 부지런히 하여 가족과 어머니를 돌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농사를 지으신 독초를 한 모금 깊숙이 빠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00년 3월 7일, 봄눈이 함박눈처럼 펄펄 내리는 날,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청진에 가요. 안녕히 계십시오." 한참 후에 아버지 방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가..."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훗날 동생과 전화 통화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시지 않으시고 술만 드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남조선으로 간다는 것을 알았고 자식과 하루라도 더 같이 자고 싶어서 논쟁을 길게 하었다고 합니다.

전 만경대 혁명학원 군사교관이시고 전쟁 때는 중대장이시던 아버지, 공산주의 사상에는 확신을 가지시고 김정일 주체사상에 반감을 가졌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는 늙어 가시면서 이상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김은선 베아파 수녀님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면서 저의 아버지를 이해하였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때 북한군 장교였고 머리와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아버지 성격과 생활에 대해 어느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전쟁 스트레스성 히스테리(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편집자 주)라는 병이

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여 보니 전쟁 히스테리를 앓는 사람들의 증상이 아버지가 보였던 증상과 같습니다. 밤이면 소리를 지르시며 땀을 흘리시고 잠을 주무시지 못하시던 아버지는 전쟁 피해자였고 환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불쌍한 아버지를 저는 증오하고 미워하였습니다.

남한에 와서도 두 분 부모님께 드린 불효와 죄책감, 북한에 대한 복수심으로 마음이 황폐화되어가던 저는 기도와 신앙과 베아파 수녀님의 사랑으로 거듭났습니다. 죄책감과 복수심을 감사와 사랑으로 바꾸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 피해자이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저는 반전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평화를 기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프신 몸으로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아버지께서 천국에 가시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불효를 씻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드린 불효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갚으려 합니다. 새터민들에게 잘 하고 새터민들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는 삶으로 부모님께 불효했던 과거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친자식으로 품어주신 베아파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녀님의 사랑과 기도의 힘으로 한국 정착에 성공하였고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봉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고향의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노인복지관 봉사도 하고 베아파 수녀님으로부터 받은 한복 나누기 행사도 했습니다.

그날, 두만강 가에서 모세에게 열어주었던 강물의 길은 열어주시지 않았지만 제 마음 안에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길을 더 크게 열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헌신한 것처럼 저도 새터민을 위해 헌신하는 작은 모세의 소명을 다하고 싶습니다.

NEWS

2012. 1. 21
청원 예절(72회)

청원자 : 백 테클라, 김 글라라 자매



2012. 2. 18
착복 예절(71회)

착복자 : 김 진영마리아, 김 요한세
레자, 정 마르첼리노 수녀



2012. 8. 1~4 수도총회 전 관구총회



2012. 4. 28
지원자 입회

입회자 : 조정래 안나 자매



2013. 1. 25 청원 예절(73회)

청원자 : 이 율리아, 성 데레사, 조 안나 자매



NEWS

2013. 2. 16
착복 예절(72회)

착복자 : 백 진희안드레아 수녀



2013. 2. 21~ 26
제15차 수도회총회 후 제1차 관구총회

제3대 인천관구 행정팀 선출
관구장 : 방 글라라 수녀
수석평의원 : 유 엘리사 수녀
평의원 : 이 보나크리스타, 박 뵘에따스 수녀



2013. 5. 1 지원자 입회

입회자 : 송명은 엘리사벳 자매



2013. 2. 19
종신서약 예절(64회)

종신서약자 : 전 마리아숨따 수녀



2013. 11. 24 지원자 입회

입회자 : 황지나 마리아레지나, 이나경 베네딕다 자매



NEWS

2012. 3. 16 지원자 입회

김누리 임이데레사,
이정미 율리안나 자매



2012. 3. 19 의정부 관구 본원 축복식



2012. 6. 24
청원 예절(75회)

청원자 : 전 마리아,
이 마리아 자매



2012. 6. 29
착복 예절(73회)

착복자 : 백 소피아,
홍 그라시아 수녀



2012. 8. 1~5 수도회 총회 전 관구총회



2012. 10. 18
첫서약 예절(71회)

첫서약자 : 강 어거스틴,
박 마리엘리사 수녀



2012. 12. 8 착복 예절(74회)

착복자 : 황 베드로,
권 마리플로린 수녀



NEWS

2012. 11. 21
청원 예절(75회)

청원자 : 김 임이데레사,
이 율리안나 자매



2013. 2. 21~25
수도회총회 후 관구총회

제2대 의정부관구 행정팀 선출
- 관구장 : 고 프란치스코 수녀
- 수석평의원 : 이 테오파노 수녀
- 평의원 : 유 토마스 수녀
조 예수의소피아수녀



2013. 5. 1
지원자 입회

입회자 : 허윤희 소화데레사,
김은선안젤라, 최지현 헬레나,
황누리 엘리사벳 자매



2013. 10. 18 착복 예절(75회)

착복자 : 전 알폰소, 김 사무엘, 이 기쁨 수녀



2013. 10. 18 첫서약 예절(72회)

첫서약자 : 박 리오바, 한 아녜스, 한 임마누엘, 안 에스텔 수녀



2013. 11. 21 청원 예절(76회)

청원자 : 허 소화데레사, 김 안젤라, 최 헬레나, 황 엘리사벳 자매



NEWS

2012. 11. 1 금은경축 미사

금경축(첫서약 1962. 5. 1)
김 막달레나, 최 벨라도,
이 필립보, 김 발라바,
이 원선시오 수녀

은경축(첫서약 1987. 10. 17)
김 마리루시, 백 엠마, 문 마리안드레아, 임
리베, 박 세라피나, 김에즈라, 김 아델라,
박 영주바오로, 신 마리휘앗, 정 알로이시
아, 정 이렌, 김 앙리, 임 쎬실, 류 베르뇌시
메온, 안 마리아네스, 김 효경 수녀



2013. 1. 6 ~14 제15차 수도회 정기총회

제15대 수도회 행정팀 선출
제15대 총장 : 차 클레멘스 수녀
수석총평의원 : 강 디모테오 수녀
총평의원 : 나 니콜라오 수녀
박 세라피나 수녀

2013. 11. 1 금경축 미사

금경축
(15회 16회 1963년 첫서약)
김 마리보나, 김 가타리나, 김 아빌
라의데레사, 나 엘리사벳, 이 말세리
나 수녀



선종

한 생을 소비녀로 봉헌한 삶, 마침내 수도 여정의 완성을 이루시고 천상 성가
정에 드신 수녀님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2012. 5. 7
박봉헌 뿌리나 수녀님 선종
입 회 1949. 3. 1
첫 서 약 1953. 11. 21
종신서약 1958. 11. 21

2013. 1. 31
이완영 레오날드 수녀님 선종
입 회 1969. 9. 24
첫 서 약 1963. 4. 30
종신서약 1968. 5. 1

2013. 6. 28
김서운 사베리오 수녀님 선종
입 회 1949. 5. 1
첫 서 약 1954. 11. 21
종신서약 1959. 11. 21

2013. 8. 24
권진수 데레사 수녀님 선종
입 회 1948. 6. 24
첫 서 약 1953. 11. 21
종신서약 1958. 11. 21

2013. 11. 2
조윤옥 스테파니아 수녀님 선종
입 회 1988. 3. 19
첫 서 약 1991. 10. 18
종신서약 1998. 2. 20

2013. 11. 14
정순옥 이렌 수녀님 선종
입 회 1984. 3. 19
첫 서 약 1987. 10. 17
종신서약 1994. 2. 24

2013. 12. 14
박영숙 마리데레사 수녀님 선종
입 회 1954. 3. 17
첫 서 약 1958. 7. 2
종신서약 1963. 11. 21



강생의 여정으로
기쁘게
맞잡습니다

성가소비녀회 성소 모임



의정부
관구

! 흰나리 모임 !

의정부, 서울 : 매월 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성재덕관
유 안나마리아 수녀 02-940-5828 010-2480-5828
조 나자레나 수녀 010-6357-5806
춘천 :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3시
죽림동 성당 033-253-7443, 010-2480-5801
제천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남천동 성당 유치원 010-2480-5801

! 나자렛 모임 !

의정부, 서울 : 서울 :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성재덕관
02-940-5828

! 성가 YJ (Young Jesus)/청년기도모임 !

의정부, 서울 : 매월 넷째 토요일 오후 4시 성재덕관
권 희 바르바라 수녀 010-8570-8641
홈페이지 : www.holyfamily.or.kr 성소카페 : http://cafe.daum.net/musim435
의정부관구 성소담당 : 02-940-5828
유 안나마리아 수녀 010-2480-5828
조 나자레나 수녀 010-6357-5806

인천 관구

! 꽃술 청년 기도 모임 !

부천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관구본원 성소국
한 하상 바오로 수녀 010-5476-5801
대전 : 매월 마지막 주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대동 성당
한 하상 바오로 수녀 010-5476-5801
광주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8시 비야분원
황 칸델라 수녀 010-5295-2180
목포 : 목포 가톨릭 대학교
정 막시밀리안꼴베 수녀 010-4003-9446
제주 : (젊은 예수) 매월 셋째 주일 오후 2시(올레모임 : 10시)이시돌 요양원
박 성임 마르타 수녀 010-2698-2121

! 나자렛 모임 !

부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본원
양평, 용문 : 매월 넷째 주일 오후 2시 양평성당수녀원
홈페이지 : www.holyfamily.or.kr 성소카페 : http://cafe.daum.net/holyfamily
인천관구 성소 담당 : 한 하상 바오로 수녀 010-5476-5801